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 Korean Academy —

1962

KOREA

대한치과의 학사 학회지 No.3.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December 31, 1962. No. 3. Choi Jin Hwan, D.D.S., M.S., Editor

This Journal is published annually by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All communications to be addressed to the Editor, San 4-4, Hoigi-dong, Dongdaemun-gu, Seoul, Korea.

本誌發刊贊助者芳名 (가나다順)

金 貴 善	金 永 薰	金 溶 晉	朴 鎔 德
朴 又 龍	安 鍾 書	李 奎 明	李 東 圭
李 春 根	李 鎬 坤	大韓齒科醫師協會	

— 이 잡지를 보시는 분에게 —

이 잡지는 위에 적은 여러분들의 희사금으로서 발행 되었읍니다
다 우리 다 함께 이분들의 따뜻한 정을 잊지 마시고 이 나라
첫과의학사 연구에 더욱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갑시다.

대한 첫과의학사 학회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December 31, 1962. No. 3.

C O N T E N T S

Historical Study on Toothache	Lee Han Soo.....	3
Dental Review of the Hyang-Yak-Gugeub-Bang ..	Choi Jin Hwan ..	4
Development of Oral Surgery in Korea	Oh Jae Ihn	36
School Dentistry, its Yesterday and Today ...	Kim Young Hun ...	57
Forty Years of Dental Education in Korea		
Foundation of Dental School in 1922	Nagira Tatzumi ...	62
Problems of the New Dental School to be Established	Lee You Kyoung ..	71
Now We Need Another Dental School	Choi Jeong Bong ..	76
Six-Year of Dental Education is Vain	P. W. Schofield ..	80
Opposition Against Dr. Schofield's View ...	Kim Yong Gŏan ...	84
Bibliograph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of Korea		87
Chronology of Dentistry (1960-1962)		90
News of Dentistry in Korea		94

大韓齒科醫學史學會誌

第三號

目次

大韓口腔外科學界의 沿革小考	吳 在 仁	36
韓國學校齒科의 發達	金 永 熏	57
齒痛의 歷史的 研究	李 漢 水	3
鄉藥救急方의 齒學的 考察	崔 鎮 煥	44
(特輯) 齒科教育四十年의 反省		
京城齒科醫學校 創設記	柳 樂 達 見	62
新設하려는 齒大是非	李 有 慶	71
齒科大學 增設論	崔 正 奉	76
正說과 逆說과 虛榮	스 코 필 드	80
스코필드博士의 所論을 읽고	金 用 琯	84
國內齒醫學史 關係 文獻		87
Green Seal 運動이란 어떤 것인가		89
1960~1962年間의 齒醫事年表		90
廣 告		88
英 文 概 要		93

齒痛의 歷史的研究

Historical Study on Toothache

李 漢 水 · 崔 鎮 煥

第一節 머 리 말

18世紀 後半부터 疾病에 關한 歷史的研究가 始作되어 *Webster* (1800), *Benedict* (1810), *Moore* (1815), *Krause* (1825), *Rosenbaum* (1839) 등은 性熱, 癩, 癰, 瘰癧를 비롯한 여러가지 傳染病의 史的研究에 뛰어난 業績을 남겼으며, 독일의 *Hecker* (1839)와 *Haeser* (1841) 는 「*史的病理學*」이라는 새로운 기치 밑에서 보다 더 組織的이며 系統的인 疾病의 史的研究를 企圖하였다.

이어서 *Hirsch* (1864)는 疾病의 史的研究와 아울러 地理的研究를 함께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研究方法는 *Newburger* (1911), *Pagel* (1898), *Clemow* (1903)等에게 계승되어 오늘날엔 醫史學研究의 重要한 一分科를 形成하게 되었다. 따라서 傳染病뿐만 아니라 어떠한 疾病에 關係하든 그것의 史的研究가 盛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齒科疾患에 關係한 것은 지금까지 소홀히 다루어졌음을 否認할 수 없다.

이에 筆者는 齒痛에 關한 知識의 變遷이 곧 齒科의 發達과 밀접한 關係에 있음을 깨닫고 이에 關한 史的研究를 하기로 작정하였으나 史料의 貧困과 力量의 不足으로 기대했던 바의 成果를 얻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齒痛은 齒科醫院을 찾아오는 大部分의 患者들이 主訴로 하는 바로서 주로 齒牙와 齒牙周圍組織으로부터 생기는 疼痛이다. 그

리나 그 原因에 對한 생각과 治療方法은 時代에 따라 各樣各
色이며 여러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筆者는 時代區分에 있어 편의에 따라 西로마帝國의 멸망까지
를 第一期, 東로마帝國의 멸망까지를 第二期, 文芸復興에서 18
世紀初까지를 第三期로 정하고, 그後로부터 지금까지를 第四期로
나누었다. 이러한 時代區分에는 異論이 없지 않겠으나 어디까지
나 齒科醫學의 發達을 中心으로 한 것임을 밝혀 둔다.

第二節 第一期(古代)時代

유프라테스江과 티그리스江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地方에는
紀元前 4~5,000年頃부터 수메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이
發명한 楔形文字는 바빌로니아나 앗시리아 사람들도 사용했는데 주로 粘土
板에다 기록했다. 19世紀 말엽에 이르러 考古學者들이 미르소
이러한 粘土板을 多量으로 발굴해 범으로써 메소포타미아 地方의
文化에 대한 우리들의 지식은 급격히 넓어지게 되었는데, 소위
“이벌라의 전설”이 기록된 粘土板(55547 號)은 니네베 부
근에서 발굴된 것으로 지금 大英博物館에 보존되어 있다.

이 粘土板에 의하면,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벌레로 變한 妖魔
가 이(齒牙)를 갉아 먹기 때문에 이살이가 온다고 생각했습
니 이를 없앨수 있는데 그 전설을 우리말로 옮겨 보면 다음과 같
다.

“아누”가 하늘을 만든 뒤에

하늘은 땅을 만들었고

땅은 강을 만들었고

강은 시내를 만들었고

시내는 늪을 만들었고

높은 벌레를 만들었는데
 벌레가 울면서 “사마쉬” 앞으로 왔다
 “에아” 앞에서 벌레는 눈물을 흘리며
 ‘나에겐 무엇을 먹이로 주시겠습니까 했다
 무르익은 無花果 열매를 너에게 주리라
 크다란 무화과의 열매를.

‘무르익은 무화과, 큰 무화과 열매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발 내 말을 들으라 나로 하여금
 이(齒牙)와 잇몸 사이에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이의 피를 빨며
 그 힘을 잃이하여 이별리를 먹겠나이다’
 때문에 너는 이렇게 외쳐라 “벌레야”

‘에아’께서 그 힘센 주먹으로 너를 치게 할테다.”
 이것은 마술 의식이다
 백주와 효스플(henbane)과 기름을 섞어라
 위의呪文을 세번 반복한 뒤
 섞은 것을 아픈 이 위에 올려 놓아라.

여기에서 “에아”神의 도움을 얻어 이별리를 없앨려고 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직 藥物만으로서
 는 앓는 이를 완전히 다스리지 못했다는 증거일 것이다. 또
 이별레가 無花果 속에 있는 구더기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
 는 듯한 인상을 느낄수 있다.

특히 그들이 사용한 藥物 가운데, 효스플에는 마취성과 진통
 성이 있는 Hyoscyamin이 主成分임을 보아 어느 정도 습

理的인 치료법이 있었다고 생각 된다

메소포타미아 地方과 거의 때를 같이 하여, 아프리카의 나일강
유역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높은 文明을 건설했다. 그들은 나일
강의 습지에 무성히 자라는 파피루스(Papyrus)에다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겼다. 그 가운데 1873년에 Ebers가 입수
한 소위 “에베르스 파피루스”에는 여러가지 질환에 대한 치료
법이 기록되어 있어, 古代 이집트의 醫學全書라고도 불리워진다.

여기에 기록된 約700種의 처방 가운데는 첫과 질환에 관한
치료법도 적지 않은데, 특히 이암이에는 乳香을 태운 재와 효
스풀 앞의 가루를 사용했으며, 몇 가지의 씹는 약도 포함되
어 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도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같이 病魔가
몸 속으로 침입한다고 믿어, 여러가지 呪術的인 치료법을 사용
했음을 보아 이암이에 대한 치료 역시 약물윤회법과 동시에 呪
文을 외쳤을 것이다.

地中海의 동쪽 기슭에 자리 잡은 히브리 사람은 첫과 의학에
관한 연구재료를 충분히 남기지지는 아니했으나, 그들의 生活에
관한 法典인 ‘탈무드’를 통하여 소금, 식초, 丁香油, 후추, 肉桂
새양等を 이암이에 藥으로 사용했음을 알수 있다.

그리고 Rabs bar Rav Huna (d. 322 A. D.)는 이암이에 마
늘 한 조각을 기름이나 소금과 함께 짊어서 아픈 이가 있는
쪽의 엄지손가락의 손톱 위에 올려놓도록 했다. 또 Talmud
에는 “齒痛은 입에서 始作하여 腸에서 끝난다.”는 커절이 있는
데 아마 이가 아프기 때문에 소화기 질환을 가져온다는 뜻일
것이다.

그들은 바빌로니아와 이집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므로 이별

때가 이 많이를 이르킨다고 믿은 듯하나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에게’ 바다를 中心으로 하여 일찍부터 찬란한 문화를 이룩한 그리스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비롯한 古代 동방 여러 나라들의 문화를 받아 들여 독특한 지식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들의 自然現象에 관한 지식을, 오늘날 自然科學이라 하지 않고 自然哲學이라 부르는 것은, 작은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제 멋대로의 思索를 加하여 망대한 學的體系를 세우기 좋아하고, 확실한 경험 위에서 이것을 實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時代에는 오늘날 우리들이 의학의 아버지라 부르는 Hippocrates (前 460-379)가 그리스各地를 여행하며 얻은 지식을 綜合하여, 새로운 醫學과 醫術을 創始하였는데, 病의 原因을 神의 行爲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血液, 粘液, 黃胆汁, 黑胆汁의 네 가지 体液이 調和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粘液이 이뿌리 밑으로 스며들면 이가 아프게 된다고 믿어 이 粘液을 흘러버리기 위해 씹는 약을 사용했다. 그리고 앓는 이가 썩었거나 몹시 흔들거리면 뽑는 것도 좋으나 그러한 증상이 없이 아프기만 할 때는 불에 달구 쇠로 이를 건조시켰으며, 그밖에 식초, 海狸香 (Castorium), 후추를 들은 약물로 양치질을 하므로써 아픈 이를 진정시켰다. 또 잇몸이 부어오르면서 이가 아플 때에는 피를 쏘아 내거나 明礬을 사용했다.

地中海를 東西로 나누면서 아프리카를 향해 길게 뻗은 이탈리아半島에는 原住民이라 볼 수 있는 에트루리아 사람들이 세력을 떨치고 있었는데, 그들은 특히 철과 보철술에 능라운 재

주를 발원했다. 한편 티베르江 유역에는 라틴 사람들이 '로마'라는 도시 국가를 만들었는데, 처음 힘이 커지자 에트루리아를 비롯한 여러 외국인들을 정복하여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처음에 医業을 천하게 보았기 때문에 당시의 醫師들은 大部分이 그리이스 사람이나 에트루리아 사람들이었으나 學問으로서의 醫學에 관한 지식에는 많은 관심을 두었다.

그 예로서 '코르넬리'의 貴族出身인 *Aulus Cornelius Celsus* (前 25 ~ 50 后) 를 들 수 있는데, 그는 農學, 哲學, 軍事學, 法學, 醫學 등 당시의 모든 지식을 총 망라한 큰 百科全書를 지었으나 醫師는 아니었다.

그의 百科全書 가운데 오늘날까지 전해진 것은 8 卷의 醫書 「*De Medicina*」 뿐인데, 法王 니콜라스 5 세의 주선으로 1478 年에야 비로소 플로렌스에서 인쇄 되었다.

여기에는 이왕이를 비롯하여 입 속의 여러가지 질환에 대한 로마 사람들의 생각과 치료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왕이에는 *Castoreum*, 만드레이크 (*Mandrake*), 양귀비꽃 따위로 만든 마취약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 *Celsus* 는 이왕이가 가장 큰 괴로움을 주는 병이라 하고, 술은 절대로 삼갈 것이며 海綿을 使用하여 뜨거운 김이 아픈 곳에 닿도록 하고, 바깥 뺨에는 扁柏科 식물의 하나인 사이프리스 (*Cypress*) 와 참빗꽃무리 (*iris*) 로 만든 밀고약 (蠟膏) 을 붙여 그 위에 양곤을 덮고 또 피리를 잘 싸도록 했다.

아픔이 한층 더 심해지면 설사를 시키고 頸部에는 온습도를 하며 입 속에는 *Cinquefoil* 이나 호스풀뿌리, 양귀비꽃, 만드레이크 따위를 토도주에 달인 물을 떠금고 있게 했다. 때로는

어깨에 沒藥, Cardamon, 無花果, 후추, 저자시 따위로 만든 硬膏를 붙이는 소위 反刺戟療法을 사용했다.

‘老프리니’라고 불리는 Caius Plinius Secundus (23~79)는 軍事, 法律, 政治, 著述 따위의 많은 업적을 남긴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지금까지 전해진 그의 책으로는 37卷으로 된 博物學 (Historia naturalis) 뿐이나 2,000卷의 책을 引用하여 20,000條目에 이르는 事項에 대해서 당시의 모든 지식을 망라했기 때문에 齒科醫學 研究에도 좋은 재료가 된다.

그는 이얌이의 원인이 세가지 있는데, 첫째는 이요, 둘째는 잇몸이며, 셋째는 신경이라 하고, 人蔘, 호스플, 忍花, 羊角蕪, 따위의 뿌리를 씹거나, 혹은 달여 그 물로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또 그의 책에는 쥐의 肺를 태운 재와 도마뱀의 肝을 잘려 썩은 구멍 (齧窩) 속에 넣는다든가, 非命으로 죽은 사람의 이로 잇몸을 문지르는 따위의 치료법이 기록되어 있어 Celsus와 比較해 볼 때 迷信的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 그리시아 사람일지도 모르는 Scribonius Largus는 西紀 47年頃에 클라우디우스皇帝에게 바치는 醫書 (De compositione medicamentorum)를 지었다. 271種의 처방으로 된 이 책에서 그는 모든 사람들이 이얌이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方法은 이를 뽑는 것이 제일이라고 하지 마는 아직도 보다 좋은 수가 많다 하면서 칼로써 썩은 부분을 떼어낸 뒤 뜨거운 물에 담그었던 호수풀뿌리를 올려 놓거나 씹는 것이 좋다고 했다.

특히 효수풀씨를 숯불 위에 뿌려서 그 연기로 熏을 한 뒤 입을 가시어 내면 작은 벌레가 나온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도 이를 양재하는 원인이 벌레라고 믿었음을 알 수 있다.

Trajan皇帝(98~117) 때의 유명한 의사와 의사였던 시리아의 Archigenes는 이얌이에 五倍子나 酸漿을 식초와 함께 달인 물로 양치질을 하거나 황산철, 후추, 甘松香油, 扁桃油 따위를 섞은 구멍에 넣는 치료법을 주로 사용했다.

그리고 여러가지 動物을 약으로 많이 썼는데 개구리를 초에 달인 물을 떠금는다든가 뱀의 혀를 불에 태워 그 재에다 기름을 조금 넣은 것을 섞은 구멍 속에 넣고 또 잇몸에도 바른다든가 지렁이를 참기름에 달여 앓는 이와 같은 쪽 커에 떨어트리는 따위가 바로 그 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남긴 가장 큰 공적은 길으로 보아 변색은 되었으나 썩지는 아니한 이가 아플 때, 작은 틈으로 색이 가장 많이 변한 곳을 골라 구멍을 뚫어 주는 치료법이 었다. 이러한 치료법은 지금도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의 발명은 예리한 관찰에서 얻은 귀중한 지식이라 생각된다.

히포크라테스以後 가장 위대한 醫師로 중배 되어 온 Claudius Galen(131~200)은 거기가 뽑히 이를 앓는 경험에 비추어 이에도 신경이 있으며 이것이 잇속의 감각을 맡아 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얌이의 원인을 두가지로 나누되 첫째는 잇속의 염증이고, 둘째는 잇몸의 염증이라 했으며, 어떠한 치료법을 사용해도 못지 앓는 이얌이는 구멍을 뚫어 주거나, 황산동(Blue vitriol)을 초에 섞은 약으로 이를 뽑아 버리도록 했다.

西로마帝국의 마지막 醫學著述家인 *Celsus Aurelianus* 는 그의 「*De morbis acutis et chronicis*」에 여러 가지 이얌이 치료법을 기록했으나 *Celsus* 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고 당시에 많이 사용된 독수한 藥을 콧구멍이나 콧구멍에 넣는 方法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아픈 이를 성급하게 뱉는 것을 몹시 위험하게 여겨 먼저 단식을 시킨 후 刺絡法을 하거나 여러가지 일반적인 치료법을 사용한 후 뱉도록 했다.

以上으로 古代의 齒痛에 관한 지식을 총괄하면 파빌로니아를 비롯한 이집트에서는 마귀가 벌레로 변하여 이를 갉아 먹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나 차츰 문화가 발달 되어감에 따라 마귀가 이를 아프게 한다는 생각은 없어지고 液体病理說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구멍이 뚫리는 것은 여전히 벌레가 있기 때문이라 믿어 그 벌레를 죽이기 위해 히오스폴을 최위 藥을 하였다.

그리고 藥物로서는 히오스폴을 비롯하여 乳香, 소금, 식초, 丁香油, 후추, 肉桂, 세알, 마늘, 海狸香, 明礬, 만드레이크, 양귀비꽃, 황산철, 甘松香油, 황산동 따위가 사용되었는데 이 가운데는 지금도 鎮痛劑로 사용 되는 것이 적지 않아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치수강을 노출시켜 주는 법까지도 이미 사용되었음은 더욱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第三節 第二期(中世)時代

로마帝국이東西로 分裂된 뒤, 西로마 帝國은 도덕과 政治의 타락, 農地의 荒廢, 北方蠻人의 침입등으로 국세는 날로 기울어

져 왔다. 드디어 476年 켈란의 傭兵隊長 오드아게르에게 든
한 뒤로부터 15~16세기의 文藝復興이 일어나기까지의 約千
年동안에는 소위 中世暗黒時代가 계속 되었다. 醫學도 一般의
로 침체 되어 Galen을 偶像化시키는 일이 고착이었고, 그
리스도敎의 승려들은 疾病이 하느님의 징벌이라 생각하여 聖經
에 기록된 바와 같은 그리스도의 高蹟으로 병을 고치려 했다.
그리고 어떠한 질병과 관계 있는 聖徒와 殉敎徒들을 기념하는
敎회가 세워져 病者들은 여기에 모여들어 병 낫기를 간구하므
로써 藥보다 기도와 단식을 앞세웠다.

이러한 敎病聖徒 가운데 특히 이얌이와 관계 있는 聖徒는
聖아폴로니아였다. 그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의 治安
官의 딸로 태어 났다. 그는 洗禮를 받은 후 異名인 디나 (Dina)
를 버리고 아폴로니아라고 불리워지게 되었는데 西紀
249年頃부터 시작된 第7次 그리스도敎徒 迫害 때 異敎徒들
의 손에 붙잡혔다. 그들은 아폴로니아의 改宗을 要求했으나 뜻
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그녀의 아를 뿌리트리며 뽑기 시작
했다. 심한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아폴로니
아는 스스로 떠오르는 불 속에 뛰어 들었다고도 하며 또 다
른 기록에는 異敎徒들이 나무막대기 위에 묶어 놓고 불을 질
렀다고 한다. 이렇게 비장한 최후를 끝마치는 순간 아폴로니아
는 자기의 殉敎日을 기억하며 자기가 겪은 그 괴로움을 깨달
았음을 기도로 알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가 아픈 일이
없게 해 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했다고 한다.

턱이 깨어지고 생니가 뽑혀무는 모진 괴로움도 참으며 끝까
지 믿음을 지킨 그녀는 西紀300年頃에 聖者의 반열에 가입
됨과 동시에 이얌이를 고쳐 주는 聖徒로 알려졌다.

독일의 바바리아地方에서 널리 사용된 기도책 가운데는

*Bayerland*의 아폴로니아여

나의 오른 손을 들어

당신께 양조 열개를 맹서 하나이다

만약 당신께서 나의 아픈 이를 고쳐 주신다면.

이 책은 커절이 있으며, 1605년에 出版된 셰르반페스의 「논
제호때」에도 아폴로니아의 얘기가 나와 있어 中世에 이 많은
사람들이 아폴로니아께 기도하는 일은 그리스도교 국가에 널리
통용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더구나 지금도 해마다 그녀의
순교일인 2月9日이 돌아오면 유럽에서는 축전을 거행하는 곳
이 있음을 보아 그녀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깊었었가를 알
수 있다.

이 반면에 6世紀의 팔엽 아라비아의 맥카에 태어난 마호멘
(Mahomed)은 隊商을 떠나 시리아地方을 여행하면서 유대교
와 그리스도교를 배워 在來의 多神教를 버리고 자기가 唯一神
인 알라의 予言者라 주장하는 이슬람교를 널리 전파했다.

그들은 한 손에 칼을 들고 또 한 손에 *Coran*을 들어
거대한 사라센帝國을 설립했는데 西는 스페인에서, 東은 사마르
칸드와 인더스강에 이르렀다.

그들은 헬레니즘文化를 존중하여 *Hippocrates, Galen*을
비롯한 로마시대의 醫書를 아라비아語로 옮겨 古典學問을 계승
발전시켰으며 특히 *Rhazes, Haly Abbas, Avicenna*
등은 아라비아醫學을 代表하는 사람들이었다.

Rhazes (865~925)는 페르샤의 라이제시 태어났으며
처음엔 哲學者와 音樂家였으나 나이 40세에 이르러 비로소
醫學에 뜻을 두었고 후세에 많은 著書를 남겼다 그 가운데

醫學의 百科全書라 볼 수 있는 25卷의 「*Liber Continens*」에는 잇몸이 부었는지 또 붓지 아니하였는지에 따라 이빨의 치료법을 달리 기록했다.

잇몸이 부었을 때는 첫날에 찬물과 식초를, 다음 날에 캄퍼와 기름을 입속에 물고 있도록 하고, 계속해서 이가 아프면 장미 기름 속에 마스터크 (*Mastic*)를 섞도록 했다.

잇몸이 붓지 않고 이가 아픈 것은 차거나 진한 体液 때문이라 하여 데리악 (*Theriac*)과 타알 (*tar*)로 반죽한 후추를 바르거나 입에 약물을 물고 있도록 했다. 藥로 말미암아 이를 앓는 일은 매우 드물지만 잇몸이 부었을 때와 같이 한낱웃법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를 뽑으려면 *Coloquintida*와 亞硫酸을 사용도록 했다. 중세·사프르 근처에서 태어난 *Haly Abbas* (930~994)는 作者의 書라고 불려지는 (*Liber Regius*) 그의 저서에서 큰 이빨이나 씹었을 때 다른 방법으로 는 아픔이 멎지 않으면 씹은 구멍 속에 쇠붙이로 만든 작은 管을 집어 넣고 그 속으로 빨강게 단 針을 집어 넣어 식을 때까지 두기를 여러번 되풀이하는 方法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도 듣지 않으면 당나귀의 젖과 阿魏나무의 진으로 만든 약인 애시페티더 (*Asafetida*)로 아픈 이가 빠져 떨어지도록 했다. 여기서 管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위험을 피하려는 뜻이 있었다고 보아진다.

第二의 *Galen* 이라는 *Avicenna* (980~1037)는 어려서부터 文法學, 修辭學, 法律學, 數學, 物理學, 哲學 등에 걸쳐 스승들을 놀라게한 天才였다. 그는 *Hippocrates*와 *Galen*의 學說을 折衷하고 同化시킨데다 자기의 풍부한 經驗을 系統化시

키프로시 비로소 아라비아 學風을 충분히 發揮했다. 그의 「Canon」은 1650年頃의 몽베리의 医科大学에서까지 교과서로 사용된 가장 유명한 醫書였는데, 이가 아르게 되는 여러가지의 원인 가운데는 이를 잡아 먹는 작은 벌레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다. 때문에 그는 효스폴씨나, 부추, 양파파위를 배워 藥을 하므로써 이벌레를 죽이려고 했다.

또 搏動性を 띤 심한 이얌이는 이부리의 体液이 너무 많이 쌓여 생긴 것이라 하여 Archigenes 가 한것 처럼 이에다 구멍을 뚫어 밖으로 体液을 끄집어 내고 그 속에 적당한 약을 넣었는데 그는 亞砒酸도 사용했다.

스페인의 코르도바는 아라비아의 商業과 文化를 西歐에 꽃피운 中心地여서 8世紀에 이미 大學이 섰다. 특히 醫科學의 발달이 놀라와 여러가지 수술 기구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난 Abulcasim (1013~1106)은 아라비아 醫學史上 가장 훌륭한 醫科學者였는데 30卷으로 된 그의 「Al-Tasrif」은 다섯번이나 라틴말로 옮겨진 일이 있었다.

그는 寒冷이나 이벌레가 원인이 되어 이가 아를 때는 무엇보다도 쇠꼬챙이를 불에 달켜 지지는 것이 제일 좋은 치료법이라 했다. 여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뼈대를 손가락 위에서 끓이는 한편 쇠꼬챙이 끝에 솜뎅이를 말아서 끓는 뼈다 속에 넣었다가 곧 아픈이 위에다 식을 때까지 올려 놓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번 되풀이하므로써 열이 이부리까지 미쳐도록 하였다.

또한 찬 뼈대를 작은 솜뎅이와 함께 먼저 아픈 이에다 올려 놓은 뒤 불에 달군 쇠꼬챙이를 그 위에다 식을 때까지 올려 놓는 것도 마찬가지라 했다.

둘째는 *Ali Abbas* 가 사용한 바와 같이 쇠붙이로 만든
관을 사용하여 그 속으로 교정치를 넣는 것이었으나 다 저지
후에는 한 時間동안 바다를 물고 있게한 것이 그와 다른 점
이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낫지 않으면 이를 뽑고 患者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꼭 끼이도록 교정한 뒤 아픈이를 정확히 확인하
여 신중히 뽑도록 했다.

僧院醫學이 盛行하고 있을 저음에 이탈리아의 나폴리 남쪽
35 마일 지점에 있는 살레르노에서는 9世紀頃부터 醫學校과
僧院醫學과는 관계 없이 民間人들이 그리스어醫學을 研究하고
있었다.

이 때의 醫學文獻 가운데 가장 有名한 것은 「醫學의 꽃」 이
라는 「*Regimen sanitatis Salernitanum*」 이다.
이것은 著者가 누구인지 모르나 아마 11世紀末에서 12世紀
初에 이루어진 것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 詩形式의 醫學全書가 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300版以上이나 出版된 이 책에는 衛生學을 비롯
하여 藥學, 解剖學等 10章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 이왕
이에 관련 된 것을 우리 말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네 이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면,
작은 벌레가 이를 갉아 먹기 때문이다;
먹은 뒤에 이를 깨끗이만 했었더라면,
그러한 아픔은 미리 막을 수가 있었으리라.
부정되지 아니한 乳齶을 태워라.
흐스플도 넣으라 양파씨도 태워라.
씹은 이에까지 꿀독을 세워라.

그 연기를 쏘이면 곧 평안하리다.

그러나 호도, 기름, 뱀장어, 감기,

사과 달걀은 과일은 삼가라 목이 쉬리라.

이것은 곧 살피르노 醫學時代에도 이가 아프게 된 원인이 벌레에 있다는 것과 그 벌레를 없앨려면 유향, 호스폴, 양파씨 등을 채워 그 연기로 아픈 이에 藥을 하므로써 죽일수있다는 옛부터의 생각을 그대로 믿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호도를 비롯한 기름, 뱀장어, 사과, 달걀은 과일을 먹거나, 감기가 걸리면 목이 쉬게 되는 副作用이 생긴다는 것을 경고한 점이 좀 새로운 지식이었다고 보겠다.

13世紀頃の 英國 文獻 가운데 앵글로 색손族들이 남긴 “醫學, 藥物學과 占屋術” (*Leechdoms, Wortcunning and Starcraft*) 이라는 것이 있는데 첫과 질화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되어 있다. 특히 이얌이에는 호도나무와 아가위나무 (山査) 껍질을 가루로 만들어 아픈 이에 뿌리고 윗니가 아플 때는 그 입사귀로 코 위에서 바람을 일으키며, 아랫니가 아플 때는 피가 나도록까지 잇몸을 자르라고 했다. 만약 벌레가 이를 갉아 먹기 때문이면 오래 된 참호랑가시나무 잎과 *Hartwort*, *Sage* 따위를 달여 그릇에 담고 그 위에서 하품을 하면 벌레가 그릇 속으로 떨어진다고 했다. 또 이 벌레에는 도토리 가루와 호스폴씨와 초 (*wax*) 를 똑 같이 섞어 촛불을 켜서 입 속에 넣어 연기를 내게하면 그 밑에 깔아 놓은 검은 옷감 위에 벌레가 떨어진다고 했다.

「*Rosa Anglica*」를 지은 영국의 *John of Gaddesden* (1280~1361)은 당시의 유명한 의사였으나 이얌이에 관한 그의 지식은 아무 새로운 것이 없었다. 아라비아 醫學에서와 같

이 쇠꼬챙이로 지지거나 피를 흘리는 것 밖에 효스플씨나 후추로 熏을 하는 것이었다.

14世紀의 가장 유명한 외과의사인 프랑스의 Guy de Chauliac. (1300~1367)이 지은 「Chirurgia Magna」에서도 이앓이의 치료법이 조금도 전보된 것은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그의 說에 의하면 이앓이가 이뿌리나 신경에서 생겼을 경우에는 이것이 병든 物質이 쌓여서 온것인가 아닌가를 살려 병든 물질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 아픔이 熱, 冷, 風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고 병든 물질이 쌓인 것이 아날 때는 溫, 冷, 乾性, 또는 溫性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5世紀의 몽베라에 大學教授였던 Taranta의 Valescus는 들에 자라는 薄荷, 白胡椒, 몰약 따위의 가루에다, 건포도알이나 白蠟을 섞어 丸을 만들어 아픈 이로 잠시 깨물고 있거나 마오나라, 육계, 새알등을 씹는 것이 아픈 이를 고치는 좋은 方法이라 했다. 특히 이벌레를 죽일려면 새가지 질이 있는데 첫째 효스플씨, 양파, 부추, 코르민트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熏法이고, 둘째는 몰약과 노회(芦荻)를 섞은 것으로 씹은 곳을 때우는 것이며, 셋째는 썩은 구멍 속에 먹커즙을 사용하는 것이라 했다.

피두아大學에서 외과학을 1460년에 죽은 Bartolomeo da Montegnana는 캄피와 아편을 섞은 것이 가장 좋은 이앓이 치료약이라 했다.

1484년에 죽은 Giovanni Arcolani는 잇몸의 색이 변하고 부었을 때는 이를 뽑아도 소용이 없으나 잇몸에 아무 변화도 없이 이가 아플때는 효과가 있을때도 있으나 없을때도 있으며 아픈

이가 섞였을 때는 뽕으로 씌운 것이 없어진다는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르트와 후추를 섞은 것이나 阿魏와 후추 阿魏와 겨자를 섞은 것이 이왕이
를 잊게 하는 것이라 했다.

以上の 것을 종합하면 中世의 僧徒醫學時代에는 齒痛도 信仰
의 힘으로 고칠려고 했으며, 아라비아醫學時代에는 亞砒酸을 의
로 하여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치수를 파괴하므로써 鎮痛을 시
킬려고 했다. 그리고 이벌레를 죽이기 위하여 薰을 하는 方法
이 더욱 盛行되었으며, 최후 수단으로 이를 뽑기도 했으나 대
부분의 치로법이 古代의 답습에 불과했다.

第四節 第三期(르네상스)時代

2世紀間에 걸쳐 十字軍의 聖地回復運動이 失敗한 뒤 西欧의
封建社會는 무너지고 都市를 중심으로 하는 手工業生産이 盛해져
資本主義生産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한편 이탈리아를 中心으로
市民階級 사이에는 封建社會나 宗教의 속박에서 人間을 해방시
켜 自由롭게 精神活動을 해 나갈려는 風潮가 일어나, 때마침
東로마에서 피난온 학자들과 함께 소위 文芸復興을 일으키게 되
었다. 이 불길은 갑자기 西유럽으로 퍼져나가 모든 분야에 새
로운 기운을 불러 일으킴에 따라 醫學도 묵은 겹질을 벗고
정확한 관찰과 진실에 발붙인 科學的醫學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特히 解剖學과 外科學이 크게 발전했다.

한편 치과학은 지금까지 잇과 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주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를 풀리는 수술은 과히
유쾌한 일이 아니었음으로 옛부터 그리스어나 로마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천하게 여겨 노예나 이발사들에게 맡겨 버리었다.
때문에 文芸復興以前의 치과학에 관한 우리들의 지식은 거의

一般 醫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기록에서 얻은 것이었으나 文藝復興은 의과학의 발전과 함께 쥘과학 분야에도 새로운 각성을 가져와 비로소 쥘과학 만을 다룬 전서 (Monograph)의 출판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보잘 것 없었다.

최초의 쥘과학서는 1530年頃に 나온 「Zene Artzney」인데 오르치 쥘과학만을 독일어로 기록 했다. 모두 13章으로 이루어진 이 책 속에는 이얌이에 관한 것도 있으나 독창적인 것은 하나로 없고, 모두 Pliny, Celsus, Galen, Avicenna, Mesue, Vigo 등 여섯 사람의 책에서 引用한 것 뿐이었다.

슈트라스버그에서 태어난 Walter Hermann Ryff (1500~1562)은 두 권 著書를 남겼는데 1545年頃に 나온 두 번째 책은 「눈과 사력을 튼튼히 하고 밝게 유지하는 법과 입 속을 산뜻하게, 이는 깨끗하게, 잇몸은 튼튼하게 하는 方法」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것이었다.

여기에 기록 된 이얌이의 진단법과 그 치료법도 아르코라니의 조반니 (Giovanni Arcolani)를 비롯한 이탈리아學者들의 說明을 번역한 것에 불과했다.

1586년에 出版된 Johannes Digtius의 「Nutzliche und bewerte Artzneyen」은 8章으로 된 22페이지의 작은책인데 이얌이의 치료에 관한 처방도 많이 기록 되어 있다. 그는 말하기를 뛰어난 의사들일수록 이얌이를 마수롭지 않게 여기므로 이가 아픈 불쌍한 사람들은 아무도 고쳐 주는 사람이 없어 찢찢 때고 있음을 보고 감히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책 역시 Galen, Hippocrates 등을 비롯한 아홉 사람의 책을 引用해서 만든 것이므로 여기에

다시 논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와 같이 16世紀에는 비록 獨立된 학문으로서의 瘡科學이 싹트기 시작했으나 그 힘은 아주 보잘 것이 없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17世紀를 거칠 때까지도 계속 되었으며 18世紀에 이르러 비로소 뚜렷한 발전을 보게 되었다.

이제 齒科專書를 除外한 一般醫書 가운데서 이얌이에 관한 지식을 보면 첫째로 근세 외과학의 아버지인 *Paré*의 瘡科專書를 들 수 있다.

이 발사 출신의 外科醫師인 *Ambroise Paré* (1510~90)는 銃創療法과 四肢切斷手術을 비롯한 여러가지 외과 수술법을 改良하여 当代第一의 外科醫로 인정되었을뿐만 아니라 프랑스 國조의 外科待醫를 지냈다.

그는 瘡科영역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특히 이얌이에 관한 그의 견해를 살펴 보면 그 원인이 속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또는 근원적인데 있는데 대개의 경우엔 齒槽 속에 뜨겁거나 찬 体液이 몰려 있기 때문이라 했다. 이가 아프면 곧 이뿔는 사람들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냇과 의사에게 가서 원인에 따라 여러가지 치료를 받을 것이라 했다. 즉 병든 체액을 없애기 위해서는 설사를 시키고 피를 흘리며 목이나 어깨에 醵角을 하는데 이러한 것은 냇과 의사의 치료법이라 했다.

또 *Paré*는 일반적인 치료법으로서 잘 낫지 않으면 흐스폴이나 아편 같은 것으로 마취를 시켜도 좋으나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신경을 태워버리는 것이 제일 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 이뿔레를 죽이기 위한 *Coloquintida*와 겨자씨를 사용 한 藥法과 아픈 이 위에 올려 놓는 여러가지 藥에 관한 기록도 있으나 별로 새로운 것을 그에게서 찾아 볼 수 없다.

폴란드의 라이덴大學 教授인 *Peter Forest* (1522~1597)는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아픈 이를 반쯤 脫臼시키면 안 아프게 된다고 주장했다. 즉 어떤 외과 의사가 *Forest*의 아픈 이를 뽑으려고 이완시켜 놓기만 했는데도 이얌이는 곧 사라져서 그후 약 5년 동안 클 없이 지낼 수 있었는데 결국은 뽑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별레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길으로 아무렇게도 앉으면서 몸치 아픈 이에는 구멍을 뚫어 준 뒤 그 속에 萬病通治藥으로 쓰이든 *Theriak*을 넣었다.

몽베리에 大學教授인 *Lazare Riviere* (1589~1655)는 여러가지 이얌이의 원인 가운데서 이별레가 가장 큰 것인데 이별레는 잇사이에 끼인 음식물이 썩어서 생긴 것이며 이때에는 이가 계속해서 아픈 것이 아니고 잠시 멈추었다가 또 반복해서 아프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이별레를 죽일려면 맛이 쓴 약이 좋다고 했다.

또 뜨거운 體液으로 말미아파 이가 아프면 먼저 팔에서 피를 뽑고 설사를 시키며 키에다 苦扁桃油나 약관의 醋를 넣었다. 반대로 찬 體液으로 이가 아플 때에는 마늘즙과 태리약을 섞은 따뜻한 약을 잇속에 넣었는데 키에다 약을 넣는 이유는 이를 향해가는 작은 뱃줄이 키를 지나가기 때문이라 했다.

그리고 丁香油나 樟腦油에 적신 작은 솜덩이를 썩은 구멍에다 넣는 것도 좋으나 특히 黃楊油는 더욱 잘 듣는다고 했다. 나아가 이가 많이 썩어 그 구멍이 깊으면 불에 달군 쇠꼬챙이나 황산, 초산 따위로 신경을 태워버렸다.

넛과 의사인 *J. S. Strobelberger* (1593~1630)는 1630년에 이와 痛風の 관계를 기록한 책을 출판했는데 痛

風이 이에 생겼을 때에는 痛風性齒痛이라 불렀다. 그는 흐스볼로 藥을 하면 벌레가 잇속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았으나 벌레가 잇다는 것은 사실이며 이것을 죽일려면 황산을 사용하거나 채구리를 물이나 초에 달인 液을 처방했다 그리고 또 담배 달인 물을 두 시간 동안 입에 물고 있자면 담배 연기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담배가 침과 콧물을 많이 나오게 해서 아픔을 이르는 병든 체액을 없애 주기 때문이라 했다. 같은 이유에서 鉉泉의 물을 내복하므로서도 이빨이를 빗게 하며 설사약, 피흘리기, 거머리, 재채기 따위로 병든 체액을 흘려버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나폴리의 醫師인 Carlo Musitano (1635~1715)는 짠 맛이나 신 맛을 띤 극히 작은 알맹이가 잇속의 예민한 신경이나 齒槽를 둘러싼 극히 얇은 막을 자극하는 것이 이가 아프게 되는 참된 원인이라 했다. 이러한 알맹이는 밖에서 직접 공기가 음식물을 통하여 자극하거나 하며 또 이러한 알맹이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되나 体液이 돌아다니면서 자극을 준다고 했다. 그 예로서는 보올트 바다 沿岸이나 北部地方에 사는 사람들은 짠맛을 띤 알맹이가 많은 大氣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따뜻한 곳에 사는 이집트 사람보다 훨씬 자주 이를 앓게 된다고 했다.

치료법으로서의 짠 알맹이를 녹여 없애며 신 알맹이를 중화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이가 썩는 것은 벌레가 있기 때문인데 이 벌레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파리라든가 다른 곤충의 알이 음식물과 함께 입 속에 들어와 까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쓴 맛이 있는 약으로 벌레를 죽일 수 있다고 했다.

같은 시대에 키일 (Kiel)의 教授인 Nicholas Pechlin (1646~1706)은 꿀을 사용하여 구더기 같은 벌레를 여러마리나 아픈 이의 썩은 구멍에서 증명해 내었다. 만서 벌레가 곧 이를 아프게하는 원인이라 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왕이의 원인이나 治療에 관하여 사 람마다 제머로 의 견을 말하고 있는 것은 16, 17世紀의 社會가 文藝復興이나 宗教改革의 영향으로 知識과 믿음을 분리 시켜서 인간의 理性과 經驗에 따라 真理에 도달하려는 合理主義의인 경향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知識은 그러한 意慾을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하지 못한 때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第五節 第四期 (近世) 時代

18世紀에 이르러 지금까지의 文化나 生活을 모두 부수어 버리고 새로운 文化와 질서를 세워보자는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 모든 것을 合理的으로 理性에 따라 비판하려 했다. 소위 이러한 啓蒙思想은 合理主義, 個人主義, 自由主義等を 內包하여 인류문화의 진보에 큰 역할을 했다.

이러한 近世社會의 形成과 때를 같이하여 自然科學界에는 뛰어난 人物들이 많이 태어나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졌다.

첫과학 분야에서는 1700年부터 첫과 의사 시험을 시작하여 개업 첫과 의사들의 질적 향상을 꾀하였으며, 1728年에는 대표적인 첫과 의학서인 폰샤르의 「外科齒科医」가 出版되므로써 참으로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科學的齒科醫學이 탄생을 보게 되었다.

따라서 古代바빌로니아時代부터 믿어온 이벌레가 이를 아프게

하는 원인이라는 說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는데, 문헌상으로 최초로 이것을 부정한 사람은 프랑스의 有名한 의사인 Jacques Haullier (1498~1562) 였다. 그는 이벌레를 죽이거나, 몰아내기 위하여 호스폴씨를 태운 연기로 熏을 하는 것이 전혀 뜻이 없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주장에 커를 거우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으며 17世紀末에 이르러서도 Jacobaens (1650~1701), Martin Six, Clauder (1633~1691), Salmuth, Pechlin, Schulz 등의 知名人士들이 이벌레를 확인 했다고 주장하는 편이 였다.

Houllier에 뒤이어 이벌레를 결정적으로 부인한 사람은 독일의 牧師인 Jacob Christian Schaffer 였다. 1757年에 레이겐스부르크 (Regensburg) 에서 出版된 그의 책 (Die eingebildeten Würmer in Zähnen) 에는 이 썩은 구멍 속에 벌레가 있다든가 호스폴씨로 熏을 하면 벌레가 나온다든가 하는 것이 모두 터무니 없는 거짓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근세 齒科의학의 아버지인 Pierre Fauchard (1678~1761) 는 이벌레가 이썩이의 원인이 된다는 說을 부인하고서 여러가지 진보된 치료법을 발표했다. 1728年에 출판된 그의 「外科齒科医」는 約27年 동안의 개업의 생활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과 당시의 지식을 총 망라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1746年에 再版이 나왔으며, 그가 간지 200년이 지난 1961年에도 프랑스에서 복사판이 출판 되었다.

그는 이가 아주 조금 썩었을 때에는 그 속을 긁어낸 뒤에 납으로 매웠으며 이보다 조금 심한 것은 肉桂油, 아편, 丁香油를 섞은 약을 묻힌 작은 솜뭉이를 매일 구멍 속에 갈아 넣

이 주어 아픈 것이 사라진 뒤에 떼었다. 또 피를 흘리거나 설사를 시키는 것이 한층 더 효과적이라 했으며 앞니에 있어서는 썩은 구멍을 넓힌 다음에 작은 튜브로 잇속에 찜이 그 림이나 体液을 밖으로 끌어 낸 뒤 그 속에 음식물 조각이 못들어가도록만 살피시 딱아 두면 곧 아픔이 없어진다고 했다. 그러나 한가지 이상한 것은 그가 때일 아침이나 자거전에 자 거의 오줌을 받아 잠시 동안씩 입에 물고 있으면 이아픈 것 이 낫게 된다고한 점이다. 또 그는 오줌을 물고 있기가 싫은 사람을 위해 암모니아와 브랜디, 미나리(水芹) 물, 山薺菜水 등을 섞어 만든 代用品을 권했다.

독일의 *Lorenz Heister* (1683~1758)는 1717年에 「이얌이」 (*De dentium dolore*) 라는 論文을 저술했다. 여기에서 그는 이금니가 깊이 썩었을 때에는 그 속에 丁香油, 肉桂油, 癩瘡木油 등을 넣으므로써 이가 안아프게 될뿐더러 더러운 것도 없애 주는 두가지 유익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어떤때는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지지거나 이를 뽑는 수 밖에 없으며 또 잇몸을 파구 찌르거나 *Schelhammer*가 주장한 바와 같이 손가락으로 아픈 이를 강하게 눌러 줌으로써도 덜 아프게 된다고 했다.

이와 같이 18世紀에 이르러서는 이얌이 만을 다룬 작은 책 들이 나왔는데 1701年에 *Kiel* 에서 출판 된 *Schelhammer* 의 *De odontalgia tactu Sananda* 와 같은 책 에 나온 *Krusingius* 의 저서 (*De odontalgia tactu Sedanta*)는 모두 아픈 이에 손을 접촉시키는 것으로써 이얌이를 낫게 하려는 치료법을 다루고 있다.

1746年 할레에서 出版된 「*De Odontalgia*」는 할레대

學 醫大教授인 *Johann Junker* (1679~1759) 가 지은 것으로 그 내용은 새로운 것이 없었다.

한편 *L. B. Lentin* 은 1756년에 磁氣를 이용하여 이 앞이를 고치려는 책을 지었고 17世紀末부터 *Talbot*, *Wec-*
kes, *Borelli* 등이 頭痛치료에 즐겨 사용한 磁氣療法을 *Klaerich*, *Brunner* 등은 이 앞이에 응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 했다. 그러한 때 *J. G. Teske* 는 「磁鐵에 의한 이 앞이 치료법 연구」 (1765刊)를 出版하여 磁氣치료를 더욱 높이 평가했으나 이러한 치료법도 *Glaubrecht* 가 1766년에 「*De Odontalgia*」를 발표하므로써 차츰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는 磁氣를 사용하면 처음에는 덜 아픈 듯하나 나중엔 관통 더 심해진다고 주장했다. 그 뒤에도 프랑스의 *Condamine* 나 독일의 *Pasch* 등이 계속해서 磁氣를 이 앞이에 즐겨 사용하였으나 영국의 待醫인 *Thomas Berdmore* (1740~1785) 는 磁氣로 이 앞이를 고친다는 것은 너무나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그의 弟子인 *Robert Wooffendale* (1742~1828) 은 1783年頃에 런던에서 「*Practical Observations on the Human Teeth*」를 출판 했다. 이 책은 齒牙를 비롯하여 여기에 생기는 질병과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것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다.

그는 이 앞이를 원인에 따라 炎症性, 류마치스性, 突感性, 露出性齒痛 등의 네가지로 나누어 說明했다.

炎症性齒痛은 “보통 이 앞이” (*Common toothache*)라고 하는 것으로 음식물을 씹는 것, 단단한 물질이 닿는 것, 뜨겁거나 찬 물질이 닿는 것, 大氣의 壓力따위가 露出된 齒神經에

자극을 주어 아픈 것이라 했다.

이 때에는 肉桂油, 丁香油, 테리핀油, 化學油等에 담근 린트 (Lint)를 사용하므로써 안아뜨게할 수 있는데 만약 계속해서 사용하면 신경이 파괴 된다고 했다. 또 아편과 캄피를 섞어 만든 약을 린트에 묻혀 이 섞은 구멍 속에 때일 갈아 넣어 두기를 8日이나 10日동안 계속해서 좋은 효과를 얻었으며 난출된 치진정을 불로 지지 파괴시키는 방법도 때로는 성공할 수 있으나 아무 효과가 없을 때가 많았다고 했다.

류마치스性 또는 神經性 齒痛은 그 증상이 류마치스나 神經痛과 비슷한데 이러한 齒痛은 耳痛, 舌痛, 扁頭痛을 비롯하여 목, 어깨, 팔, 가슴등에 근육통을 이르키며 때로는 머리와 面어깨, 面팔, 가슴, 뺨통에 이르기까지 모두 아프게 된다고 했다. 이러한 것은 일주일이나 열흘 이상 계속해서 아프다가도 한 이 주일 동안은 괜찮다가 또 다시 전과 같이 아프기 시작하기를 구속적으로 거듭하는데 이런 사람은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현기증을 이르킨다고 했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神經痛이나 류마치스藥을 주어서는 효과가 없으므로 그는 항상 원인치를 찾아내어 그 이를 뽑아 주었더니 빠르면 몇분 이내로 안아프게 되나 보통은 몇 시간 이후에 멎는다고 했다 그러나 때로는 반달이 지나고 한달이 되어도 낫지 않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Wooffendale 은 Berdmore 가 죽은 뒤 그 자리를 물려받아 런던에서 개업을 했으나 1795年 누욕으로 건너왔다. 이 때 美國은 英國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직후에서 天然資源이 풍부하고 기름진 땅이 끝없이 펼쳐진 新大陸으로 수 많은 移民들이 밀려들고 있었다.

19世紀에 이르러 自然科學은 눈부신 발달하여 科學의 世紀라고 불리워지게 되었다. 다윈의 進化論을 비롯하여 헬름홀츠의 에테르기 不滅의 法則, 갈바니, 볼타, 와라데 등의 電氣의 研究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빠스퇴르, 코흐 등의 細菌學研究, 리스터의 防腐劑發明, 웰스와 몰튼의 麻醉劑發明等々 이루 열거 할 수 없을 정도의 빛나는 업적들이 모두 19世紀를 장식했다.

특히 치과 의학은 美國에서 發展했는데 1839 年에 最初의 齒科教育機關의 創設을 비롯하여 치과學術雜誌의 創刊과 치과의 사회의 結成을 이룩하므로써 비로소 組織된 치과 의학의 탄생은 보게 되었다.

Hayden 과 손 잡고 역사상 最初의 齒科學校인 볼티모어 치과 의학교를 세운 Chapin A. Harris (1806~60) 는 1839 年에 그의 처녀작인 「齒科手術學」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初版 당시에는 불과 380 페이지였으나 1885年頃에 11版이 나왔을 때는 994 페이지에 이르렀다. 그 후에도 版을 거듭하여 19世紀末에는 13版이 나올 정도로 人氣를 집중한 名著였는데 이제 그가 죽은 뒤에 출판된 11版을 중심으로 이 앞이에 관한 견해를 살펴 보기로 한다.

그는 이 앞이의 원인이 매우 많으나 齒髓의 자극 및 염증으로 오는 것과 치근막의 염증으로 오는 것이 많고 때로는 활개의 치아로 向하는 신경이나 여러개의 치아에 分布된神經이 나오는 신경간이 병변을 이르렀을 때와 소화기관 질환이나 임신, 무월경 등으로 온 子宮의 신경과민 등으로 오는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또 Hullihen 의 견해를 引用하였는데 치수의 노출을 비롯하여 치수의 肉腫 (Tungus) 과 치수강 속에 고름이 짙어 있을 때, 그리고 이뿌리를 덮고 있는 골막이 병들었을

때와 欠感 등 다섯가지 원인으로 이얌이가 생긴다고 했다. 또 *Heilden* 의 說을 採用하여 치수와 치근막의 종혈, 염증, 병변 등이 그 원인이라 했다.

치료법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그 원인을 없애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만성적인 염증이나 자극으로 오는 이얌이에는 크레오소트 (*Creasote*), 丁香油, 유계유, 아편정기 (*Laudanum*) 캄피, 탄닌酸, 에탈, 클로로폼 등이 좋은데 特別히 異物을 없애고 썩은 구멍을 조심스럽게 말린 다음 작은 솜뭉치로 유황에텔, 캄피가루, 명판가루, 아편의 유산염등으로 된 약을 적서 넣으면 곧 이얌이 그친다고 했다.

때로는 치수를 파괴하므로서만 안아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신경을 뽑거나, 불에 지지거나, 아비산, 석탄산, 코발트, 염화아연 등을 사용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석탄산은 1834년에 *Runge* 가 石炭타르에서 발견해낸 것이며 아비산을 치수 파괴에 사용하게 된 것은 中世期부터였으나 1836년 뉴욕의 *Spooner* 가 그 효과를 크게 인정한 후부터 다시 採用하게 된 것이다.

Harris 는 급성 치수염으로 오는 이얌이는 그 이를 뽑거나 치수를 파괴하므로서만 아픔을 멎게 하는데 이를 뽑을려면 아픔의 크기, 염증의 진행, 치아의 중요성등을 생각해서 신중히 뽑도록 했다.

그밖의 원인으로 오는 것은 다른 부위의 국소옷법과 비슷한 치료를 하면 된다면서, 塩下劑를 쓰거나 동물성 음식물과 술을 삼가고, 아픈이의 잇몸에서 피를 뽑아낼 것이며 만약 맥박이 넘치는듯 하고, 단단하면 팔에서 피를 뽑아 내거나 癩汗劑를 쓰고, 癰化인산과 겨자가 들은 硬膏를 목 뒤에 붙이고 더운물

에 발을 씻는 것등이 효과적이라 했다.

그러나 류마치스나 통풍성 치통은 위에 말한 국소치료법 이외에 류마치스와 통풍을 치료하는 전신치료를 아울러 해야 되며, 소화기 계통의 질병으로 온 이얌이엔 吐劑, 下劑, 키나비등을 사용하며 이뿌리의 外骨症으로 오는 이얌이에는 오직 이를 뽑는 도리 밖에 없다고 했다.

口腔外科學을 最初로 齒科學의 一專門分科로 인정한 美國의 James Edmund Garretson (1828~95) 은 그의名著인 「A System of Oral Surgery」 (初版 1869, 5版 1890) 가운데에서 이얌이의 원인을 일곱가지고 나누어 설명했다.

첫째는 법랑질이 갑자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생긴 상아질의 노출로 팔미암은 저작과민으로서, 砒素를 비롯하여 鹽化亞鉛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安全을 피하기 위해서는 크레오소트, 클로로폼, 丁香油, 저아바꽃 (aconite), 초산은, 염화칼슘, 탄산카리등을 사용했다.

둘째는 치수가 刺戟源에 直接的으로나 或은 間接적으로 노출되었을 때인데 치수의 노출에는 진정제와 근치수술을 사용했다 급성 치수염을 일으켰을 때는 목덜미에 發泡藥 (blisters) 을 파르거나 황산 마구비습 같은 鹽下劑를 사용하며 發汗劑, 利尿劑 등을 사용했다. 充填을 한 이가 몹시 아플 때에는 充填物을 뽑아내고 충전물과 치수지 사이에 石棉, gutta-percha, 鹽化亞鉛등을 깔면 좋다고 했다.

그리고 充填을 여러개 해서 어느 치아가 아픔을 주고 있는지 모를 경우에 완물을 입에 물고 있거나 찬 器具로 充填物 하나 하나를 접촉시켜 보면 쉽게 그 원인치를 찾아낼 수 있

다고 했다.

치수가 노출되지 않아도 大氣의 變化나 류마치스, 痛風 등이 이빨이를 이르게며 胃疾患으로도 생긴다고 했다. 셋째는 齒根膜의 病變인데 齒根膜炎과 齒槽膿瘍을 들어 설명했다. 넷째 그 림과 카스가 치수강 속에 가쳐 있을 때인데, 치수가 썩어서 생긴 경우가 많으며 이 때에는 그 이를 뽑아 버거나 구멍을 뚫어 준다고 했다. 다섯째는 치수 속에 뼈와 비슷한 상아질 알맹이가 들어 있을 경우인데 이를 뽑거나 구멍을 뚫고 砒素劑를 넣는다 했다. 여섯째는 末感性齒痛인데 새로운 이가 올라올때 이미 다 올라온 이가 아픈 경우를 비롯하여 크나 구멍의 疾患으로 이가 아픈 경우라 했다.

끝으로 그는 잇몸과 齒槽가 림수 되어 齒根膜과 牙齦等이 노출된 경우를 들었다. 이 때에는 치료의 효과를 보기 어려울 뽑아야 될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잇몸과 이 사이에 예리한 Excavator를 넣어 이뿌리 둘레에 붙어 있는 齒石을 없애 주므로써 조금은 좋아지게 된다고 했다.

1887년에 Wilbur F. Litch 의 편집으로 나온 「The American System of Dentistry」 가운데에서 Albert P. Brubaker 는 이빨이를 局所性齒痛과 反射性齒痛의 두가지로 크게 나누었다. 앞의 것은 원인이 齒牙 自体에 있을 경우로서 원인에 따라 다시 여덟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이가 조금 썩었을 때는 溫度의 자극으로나 음식물이 구멍 속에 박혀 있어 치수를 자극하기 때문이라 하고 썩은 구멍을 그냥 때워 주기만 해도 아픈 것이 없어진다고 했다.

둘째, 위의 경우보다 좀 더 심하게 이가 썩어 구멍이 깊을 때는 먼저 그 속을 깨끗하게 말리고 Sandarac varnish

나 *guttapercha* 를 물린 솜을 넣어 두면 좋다고 했다. 셋째, 치수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溫度나 體質의 特異性和 노출 된 시간과 크기에 따라 계속해서 아프거나 잠깐 동안 아프게 되며 단단한 물질이 닿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몇 달 동안 아프지 않고 저발 수 있다고 했다. 넷째 치수의 출혈과 염증인데 치수가 노출 되지 않고 치수강 속에 병이 있기 때문이라 하고, 다섯째 치수가 죽어 썩었을 때는 부패물질과 가스가 빠져 나갈 길을 열어 주기 위해 구멍을 뚫어 준다고 했다. 만약 그냥 내버려 두다면 몹시 아픈 것은 물론, 齒槽膿瘍을 이르게 되는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여섯째는 치수 속에 상아질 알맹이가 있을 경우이며, 일곱째는 齒根膜의 炎症이고, 끝으로 여덟째는 齒冠이 깨어지거나 치아가 제자리에 있지 아니할 경우라 했다.

그리고 反射性 齒痛을 原因에 따라 末梢性, 大腦性, 全身性 등의 세가지로 나누고, 末梢性 原因을 다시 齒牙, 눈과 코, 내장 등의 세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原因齒牙와 관계 없는 齒牙가 아픈 경우인데 交感性 齒痛이 바로 이것이라 하고, 둘째는 눈이나 코에 병이 있을 때 이가 아프게 되는 일이 있다고 했다. 셋째는 腹腔 속의 여러 장기에 병이 있을 때 이앓이를 볼 수 있는데 특히 消化管과 子宮이 관계가 깊다고 했다. 설사를 시켜 주므로써 이앓이가 그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으며 消化障礙, 배멀미, 배고픔, 신장결석 때에도 이가 아픈 일이 있다는 것과 임신을 했거나 혹은 하지 않은 子宮의 病變으로 이가 아픈 일은 흔히 있으며, 아기를 낳을 때 이가 아픈 부인도 있었다고 했다.

大脳性原因을 또 두가지로 나누었는데 그 첫째는 血栓, 腫瘍 炎症性作用등이 腦底나 實質속이나 혹은 皮質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가 아픈 경우가 있는데 精神異常, 腦軟化症 같은 大脳疾患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하고, 둘째는 히스테리카 이를 아프게 한다고 했다. 全身性原因인 경우에도 세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말라리아를 앓은 사람들에게서 정기적으로 이가 아픈 사실을 볼 수 있다고 했으며, 둘째는 痛風으로 이가 아플 때였다. 셋째는 매독, 빈혈등의 환자와 癩疹性疾患의 '前驅病狀'으로 이가 아플 때도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18世紀에 들어와 이벌레가 齒痛을 이끄는다는 說이 완전히 무너지기부터 齒痛에 관한 지식은 급속도로 발달하였으며 19世紀末에 이르러서는 과거 어느 때 보라도 가장 훌륭한 치료법과 과학적인 齒痛의 원인을 알게 되었다.

第六節 結 論

齒痛은 人類의 歴史가 始作되기 以前에도 있었겠으나 그 확실한 증거는 歷史時代以後 바빌론의 粘土板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 당시에는 齒痛이 이벌레로 말미암은 것으로 생각하여 치료법 또한 呪術과 藥物을 동시에 사용하여 이벌레를 없애는데 주력하였다.

그리시아와 로마 사람들은 그들의 예리한 관찰력으로 齒痛이 벌레 이외의 원인으로도 생기는 것을 알았으며 치료법에 있어서도 비교적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할 줄 알았다.

그러나 中世에 들어와 僧徒醫學이 전성할 때에는 다시금 미신과 呪術이 풍미하였으며 아라비아醫學이 그리시아 의학을 이어 받기는 하였으나 크게 발전시키지는 못하였고 대부분이 古代知

識의 답습에 不過하였다.

文藝復興의 영향으로 지금까지의 非合理的이고 盲目的이었던 知識에 對한 反省과 보다 더 合理的인 眞理의 追求가 始作 되었으나 18世紀初에 이르러까지는 오히려 독단과 혼란이 계속 되었다. 그러나 18世紀中葉에 이르러 이벌레에 대한 妄想이 깨어지 되부터 齒痛에 對한 올바른 지식은 날로 발달하였고 19世紀以後부터는 더욱 急速廣로發展하였다.

： 参 考 文 献 ：

- (1) Townend, B. R. : *Dent. Record*, 1941, 61:1-12, 46-54.
- (2) Harris, John : *Am. J. Dent. Sci*, 1845-6, 6:60-110.
- (3) Weinberger, B. W. : *Dent. Items Interest*, 1943, 66:226-229.
- (4) Brown, L. Parmly : *Dent. Cosmos*, 1936, 78: 246-248.
- (5) Thoma, Kurt H. : *J. Allied. Dent. Soc.*, 1917, 7:327-334.
- (6) Perine, Geo. H. : *N. Y. Dent. J.*, 1858, 1:6.
- (7) Wyndham, H. : *Dent. Rev.*, 1904, 18: 970-75.
- (8) Asbell, Milton B. : *J. A. D. A.* 1941, 28: 1098-1107.
- (9) Weinberger, B. W. : *Bull. Hist. Med.*, 1946, 20:188-195.
- (10) Weinberger, B. W. : *J. A. D. A.* 1947, 34: 170-184.
- (11) Prinz, Hermann : *Dent. Cosmos*, 1934, 76: 91.
- (12) Ambler, Henry L. : *Dent. Sum.*, 1923, 43: 654-664.
- (13) Prinz Hermann : *Dent. Cosmos*, 1911, 53: 1371-1376.
- (14) Khalifah & Haddad : *J. A. D. A.* 1937, 24: 944-955.
- (15) Khalifah, Elias S. : *J. A. D. A.* 1937, 24: 1847-1852.
- (16) Vian, George : *Dent. Cosmos*, 1923, 65: 799.
- (17) Baker, Arthur W. : *J. Brit. Dent. Ass.*, 1884, 5: 354-257
- (18) Guerini, V. : *Dent. Cosmos*, 1904, 46: 1010-1017.
- (19) Trueman, William H. : *Dent. Cosmos*, 1887, 29: 188-89.

大韓口腔外科學界의沿革小考

大韓頭顔面成形外科學會會長 吳 在 仁

現今 自然科學界의發展과 刀圭界의 振興은 極效를 指向하고 있음은 既知의 事實이며 이에 專門的으로 各分科領域에서 創造的 或은 意慾的으로 研磨探究하여 學理的으로 또는 臨床的으로 深奧한 科學의 眞理를 究明하여 積極的인 實踐段階에 있음은 우리 學界의 燦爛한 業績인 同時에 慶賀하여 마지 아니하는 바 있다.

一般醫學에 있어서의 分科領域은 廣範圍하며 20余分科目으로 分雜되어 있을뿐 아니라 數十年間 分科的으로 履修研究되어온만큼 理論的으로 臨床的으로 長足の 發展을 圖謀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口腔外科領域은 過去부터 分科學科로 되어 있었으나 專門科目으로 指目된지는 卽年輪이 얇고 따라 專攻한 學者가 稀少하였던 關係로 一般民衆의 認識과 見解가 不充分할뿐 아니라 治療人 自身들도 이에 對한 理解와 關心이 많지 아니하였던 因緣으로 一般外科 或은 耳鼻咽喉科에서 施療하였던 影響도 없지 아니하여 自然히 分科的으로 活潑性있는 進歩를 期하지 못한 感을 가지게 하였다 그러나 一般外科醫 및 耳鼻咽喉科醫의 功蹟은 顯著한바 많았으며 協助的이었음은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에 우리나라가 建國한지도 於焉間 17個星期이 經過하였고 韓國口腔外科學界의 발자취를 더듬어 沿革의 小考를 略述하고자 하니 或時 未心한 點은 寬容과 進示를 바란다

우리나라에 洋醫學이 들은지 일파아니 되된 1907년에 京

城醫學專門學校前身인 大韓醫學校(一名 總督府醫學校)를卒業하신 朴啓陽先生이 계시다. 先生은 享年 82 歲의 高令으로 樂園洞一隅에서 隱居하고 계시다. 當時 先生께서는 樂園洞一隅에서 一般醫開業을 하였는데 그當時診療科目을 耳鼻咽喉科와 口腔外科를 標榜하여 韓國人으로써 韓國에서 最初로 口腔外科를 診療하였다고 承聞되며 至今으로부터 約 57 年前 일이며 診療科目 標榜한 本中에 最先峰이시다. 그當時에는 洋醫學이 輸入된지 얼마 아니되어 그에對한 普及과 認識이 淺薄하였으며 따라 一般적으로 內科를 中心으로 治療하는 傾向이 많았음에도 不拘하고 누구보다도 率先 治療科目中 口腔外科를 標榜한 것은 先見之明이 있고 明哲하신 先生으로 思料되는 바이며 韓國口腔外科學界의 先驅者인 同時에 功勞者로서 그業績을 推仰하여 마지 아니하는 바이다.

韓國齒科界의 元老이며 最初의 齒科醫師인 咸錫泰先生이 계시다. 故先生은 1914 年 日本齒科醫學校를 卒業하고 서울 三角洞(現濟昌局跡)에서 開業을 하고 診療科目中에 口腔外科를 標榜하였다고 하며 先生은 6.25 動亂當時 拉北되어 現在는 故人이나 當時 李王塚의 典醫였고 韓國齒科醫療界의 開拓者이며 우리 學界의 滿失로서 오늘의 齒科醫療學界를 亮眉向上시킨 功蹟과 口腔保健衛生思想이 普及宣揚되지 못한 初創時期에 가진 非難과 隘路를 克服하여 陰陽으로 齒科醫療學界의 隆盛을 爲해 獻身的으로 貢獻한데 對한 그 燦然한 偉業은 後世에 길이 길이 빛날 것으로 믿으며 追慕와 讚揚을 빌어 마지 아니하는 바이다.

그後 1916 年 4 月 平壤에 계시었다가 現서울特別市中區忠武路 1 街에서 開業하시고 계시신 韓東燦先生과 1920 年 7 月 開城

市에서 開業하시었다고 現서울特別市鍾路區世宗路에 開業하고 계신 李熙昌先生께서는 같은 東京齒科醫學專門學校를 卒業하시었으며 이분들 開業時에도 口腔外科를 診療科目으로 標榜하시었다고 한다.

「余談이나 그後 世富蘭德醫學專門學校(現延世大醫大)齒科々長으로 계시었던 美國人 '브-쓰' 教授가 口腔外科를 診療하마 있으며 前京城帝大醫學部(現서울大學校醫科大學前身)附屬病院 齒科學教室科長 日本人 生田信保助教授가 口腔外科를 診療하였다.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現서울大學校齒科大學)口腔外科學教室에 西山幸男教授、그後 垣見庸三教授들이 口腔外科學을 理論的 或은 臨床的으로 指導教育하신 分으로 韓國口腔外科學取와 教育界에 끼친바 偉蹟이 크다고 아니 할수 없으며 그功勞에 致謝하여 마치 아니 하는 바이다.

더욱이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々長 柳樂達見博士의 韓國齒科醫療學取와 教育界에 끼친바 偉大한 功蹟은 길이 길이 빛날 것이며 讚揚과 아울러 恩師로서의 追慕와 敬意를 아끼지 아니 하는 바이며 이분들은 解放과 더불어 敍國하시었다」

그後부터는 韓國人齒科醫師로써 開業時에는 診療科目으로 口腔外科를 標示하시는 분이 每年增加하였으나 專門的으로 專攻后 口腔外科를 標榜하신 분은 없었으며 專攻하신 分으로 開業하신 분도 없었다.

當時에는 韓國人으로써 卒業后에 各專門 大學에서 口腔外科學을 專攻하려하여도 口腔外科學教室을 設置한 大學은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 一校뿐이며 韓國人으로서도 民族的特殊性和 經濟的困難等 不合理한 環境으로 因하여 研究室에 殘留하여 學究的으로

專攻研究하기에는 大端 어려운 處置였었다. 이러한 隘路를 克服하면서 또 꾸준한 真理探究에 不斷한 努力을 傾注하여가며 研究生活를 繼續하신 分中에 1933年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를 卒業하신 朴鎔德教授가 계시다 朴教授는 卒業后 東京齒科醫學校口腔外科學教室에서 研究하신后 敍國하시어 現延世醫大 齒科學教室에서 20余年間 教授로 계시다가 現서울特別市鍾路 一隅에서 開業하고 계시다.

그 이듬해인 1934年에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를 卒業하신 金仁煥講師가 계시며 卒業后 곧 母校 口腔外科學教室에 入局하시어 以來 10余年間 講師로서 後輩養成에 盡力하시었으며 日帝時 母校 口腔外科學教室에서 韓國人으로서는 第一 오래 동안 專攻하신 分으로 解放直後 別世하시었다. 同期同窓이신 安正浩教授는 多年間 母校의 京城齒醫專 口腔外科學教室에서 專攻後 補綴學教室로 옮겨 前後 20余年間 教授로써 後輩養成에 獻身하시다가 現在 安養邑 一隅에서 開業하고 계시다.

1936年 京城齒科醫專을 卒業하신 劉義鏞先住이 母校口腔外科學教室에서 多年間 專攻하신后 서울特別市校洞入口에서 開業하시다가 六年前에 別世하시었고 同期同窓이신 尹麒炳先生계시도 母校口腔外科學教室에서 專攻하신后 全州市一隅에서 開業하시고 계시다.

1938年 李迥柱教授는 母校卒業后 京城帝大 醫學部齒科學教室에서 口腔外科를 專攻하시었으며 그後 서울女子醫專(現首都醫大) 齒科學教室에서 教鞭을 잡고 계시다가 現서울特別市鍾路穴街에서 開業하시고 계시다.

筆者(吳在仁)는 同年에 京城齒醫專을 卒業后 會寧陸軍病院에 服務中 日帝時 日露戰인 長鼓峯戰에 出征하여 軍陣醫學의 一部

分인 顎顔面口腔整形外科를 施療한바 있었으나 좀 더 實力을涵
養할 目的으로 医科에編入, 卒業后 京城帝大 医学部 外科에서
主로 顎顔面外科를 專攻后 解放과 더불어 서울大 学校 齒大口腔外
科学教室에서 前後 20余年間 學研生活과 教授로써 后輩養成에
盡力하였으며 動亂時에는 空軍々医官으로 活躍한바 있다. 現在口
腔外科를 專門的으로 開業하고 있으며 韓國人口腔外科学專門医로
最初의開業이다.

1941年에 李春樞教授가 京城齒医專을 卒業后 口腔外科学教
室에 入局以來 20余年間 后輩養成에 努力을傾注하고 있으며
口腔外科学界의 重陣이며 現在 齒大教授로 계시다.

1942年 京城齒科医專出身인 宋在迪助教授는 卒業后 母校인
口腔外科学教室에 入局 數年間 專攻后 다시 補綴學教室에서 后
輩養成에 努力하시다가 6.25 動亂時 別世하시었다.

1943年 京城齒医專을 卒業하신 扈鼎鎮講師는 母校 口腔外
科学教室에서 專攻中 6.25 動亂으로 別世하시었으며

1943年 日本東京齒科医專을 卒業하신 金用珩教授는 解放后
서울大 学校 齒大口腔外科学教室 入局以來 10余年間 后輩養成에
盡力하고 계시는 口腔外科界의 重陣이시다

1948年 解放后 서울大 学校 齒科大学를 卒業하신 安炯桂教
授는 一母校 口腔外科学教室에 入局專攻하시다가 다시 放射線
科々長으로 教鞭을 잡고 계시며 1947年 張完植副教授는 卒
業即后 口腔外科를 專攻하시다가 現在 補綴學을 專攻하고 계시
며 金周煥助教授도 同年 卒業后 空軍々医官으로 活躍하시다가
母校 口腔外科学教室에서 專攻后 現在 口腔衛生學을 担当하고
계시다. 卞鍾秀先生亦是 同期同窓으로 卒業后 大邱 東山基督病院

齒科々長으로 계시며 渡美하여 口腔外科 碩士學位를 獲得敍國
구준환 學究에 協力하시는 中堅學者이시다. 그리고 그 외에도
金敬植, 金朝桓, 金煥助教授 및 近年에 卒業한 金圭植, 李在賢
講師들이 母校 口腔外科学教室에서 數年間 專攻하고 계시며 方
城, 양동규와 十余名이 大學院에서 或은 外國에서 口腔外科学을
專攻或履修하고 있는 젊은 醫學徒가 있으며 將來가 嚮望된다.

以上과 같이 少數人의 口腔外科專門医와 歴史的으로 보아 오
래지 못한 우리 口腔外科学界는 눈비시는 顯著한 發展向上을
圖謀하여 나카던中 1950年 6.25 動亂을契機로 우리 口腔
外科学界는 黎明期를脱出, 一躍 發展期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는 우리 齒科軍医官들이 一線에서 或은 後方에서 指目할만
한 活動을 繼續하였으며 그들의 深奧한學識과 豊富한經驗을 거
을 삼아 責任과 使命을 完遂하므로써 口腔外科学界學界뿐만 아
니라 더 나아가 顎顔面成形外科学界에 있어서 눈부신 活躍과
뚜렷한 慧星의存在로 群立하였으며 軍陣醫學뿐만 아니라 齒科醫
學의 重要性和 特殊性을 再認識케 하였음은 勿論 더 나아가
이번 機會로因하여 顎顔面口腔外科学에 對한 普及宣揚과 더불어
各自 醫師로서의 重大한責任과 過重한 義務에 忠實할 것을 覺
醒하므로써 戰時는 勿論이지만 平時에도 우리의 學理와 技術研
磨에 꾸준한 努力과 마음에 準備의 態勢를 갖추어 真理探究에
精勵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겠다는 徹底한 認識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動亂時 軍陣醫學에 있어 活躍하신 軍医官中 李洪銑副教授가
계시다 1935年 京城齒醫專을 卒業하시었으며 醫師檢定試驗을
「패스」한后 齒大 矯正學校에서 專攻하신바 있으시며 6.25
動亂時 軍門에 入隊하여 成形外科를 專攻 渡美하시었다가 敍國

除隊后 釜山医科大学에서 敎鞭을 잡으시었다.

1948年 서울대학교 齒科大学을卒業하신 李烈熙助敎授는 6.25動亂時에 慶北대학교 齒科大学에 進學卒業하였으며 軍醫官으로서 顎顔面口腔成形外科의 「호프」로서活躍한바 있으며 除隊后 慶北대학교 医科大学 齒科々長으로 后輩養成과 學究에 專念은 勿論 將來有望한 中堅醫學者이시다

1942年 京城齒醫專을卒業하신 鄭淳度助敎授는 卒業后 開業하시다가 6.25動亂時 入隊后 顎顔面口腔成形外科의 많은 研究과 活躍을 하신后 除隊、母校에서 后輩養成에 힘쓰신바 있으며 醫師檢定試驗에 「패스」하신 后 現在 서울特別市堅志洞에서 開業고 계시다

그外 金基完、王達昇中領을 비롯하여 閔丙一、姜鎬禧、丁昌煥、池光源、李元容、李제철、智達鎮外 十餘名이 口腔外科 或은 顎顔面形成外科를 研究次 渡美하여 履修后 故國하여 軍醫官으로 或은 除隊后에 開業하고 계신분이 있다.

特記할 것은 1959年에 大韓口腔外科学會가 創設되어 李春根、金用喆、卞鍾秀、筆者等 諸敎授가 會長田으로 選拔되어 꾸준한 活躍을 하고 있으며 1962年에는 大韓顎顔面成形外科学會가 創立되어 筆者를 爲始하여 鄭淳度、李烈熙諸敎授가 會長田의 一員으로 自主的인 創意性을 發揮하여 清新하고도 明朗한 雰囲気에서 앞날의 發展과 成功을 爲하여 學究에 精勵할뿐 아니라 좀 더 높은 理想에서 當爲하면서 相互協助下에 進取性있는 活潑한 움직임을 하고 있으며 會員數도 約百餘名이나 되는 有能한 人材와 中堅人物로서 構成되어 있으며 韓國口腔外科学會와 大韓顎顔面成形外科学會를 좀 더 學究的으로나 技術的으로 推進 強化 一路에 있으며 나아가 每月 學術集談會는 開催되어 和氣

嚮々한 가운데 深奥한 真理探究과 學術檢討에 盡力할뿐 아니라
相互親睦과 더불어 學會發展과 隆盛에 奮闘努力하고 있기 마치
아니한 將來에 韓國醫學界는 勿論 더 나아가 살기 좋은 明朗
社會와 健全한 福祉國家建設에 이바지할뿐 아니라 全世界人類福
祉社會를 爲하여 貢獻할 수 있는 有能한學會가 되는 同時에
우리 國家社會에서 渴望하는 人傑學者가 많이 輩出되기를 祈願
하여 마치 아니하는 바이다.

끝으로 우리 韓國口腔外科學界는 揚心兩面으로 여러 가지 困難
과 逆境에서 많은 險路를 甘受하여가며 오로지 医療學會를 爲
하여 敢闘精進하여 오신 先後輩中 벌써 故人이 되신 同志가
계시며 이분들의 冥福을 빌뿐아니라 우리 口腔外科學會에 隱然
中 힘과 支柱가 되어 주신 여러同志諸位의 偉業을 致謝하는
同時에 韓國口腔外科學會界와 韓國顎顔面成形外科學會의 前途의
祝福을 빌며 앞날의 發展과 光榮을 祝禱하면서 略述하는 바이
다. (1962年 12月 31日 記)

BERNHARD WOLF WEINBERGER (1885~1960)

美國의 플로리다州, Idaho Springs 에서 태어난 그는 1908年
에 펜실바니아大學에서 D.D.S學位를 받았다

그는 「矯正齒科學, 其起源에 관한 史的考察과 發達」을 비롯하
여 「齒科學史入門」等 12卷의 單行本과 250余篇의 論文을 남겼
는데 矯正齒科에 관한 것이 46篇이었다. 1915年 8月부터
連載하기 시작한 그의 矯正齒科學史는 1922年 8月에서 끝났다.

74세를 一期로 1960年 5月 9日에 뉴·올리만스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이렇게 많은 業績을 남긴 그의 불거찬 노력에
凡人들은 오직 고개만 숙일뿐이다.

鄉藥救急方の 齒學的 考察

I. 緒 論

鄉藥救急方は 지금까지 남아 있는 우리 古典醫書 가운데서 가장 오래 된 것이다.

이 醫書에 관하여는 三木를 비롯한 橘井, 金의 書誌學的인 研究가 있고 小倉를 비롯한 方の 言語學的인 考察이 言及되어 있어 醫史學을 研究하는 사람은 물론 言語學 및 生物學方面의 研究者에게도 貴重한 資料가 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事實이다.

그러나 아직 齒學的인 面에서 鄉藥救急方を 研究한 것은 찾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筆者는 오래전부터 本醫書의 齒學的인 考察을 하고 싶어 했으나 불행히도 이 醫書의 唯一本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日本 宮内省圖書寮에 秘藏되어 있어 오늘날까지 손을 대지 못했다.

多幸히 金斗鍾教授께서는 日本에서 鄉藥救急方の 마이크로 필름을 求해 오셨기에 이것을 中心으로 하여 이미 散佚된 御醫撮要方, 三和子鄉藥方, 鄉藥簡易方等 고려시대 우리 醫書의 遺方을 齒學的인 面에서 살펴 보므로써 高麗時代齒學의 一端을 밝히려 한다.

II. 成立과 內容

鄉藥救急方の 成立과 內容은 尹祥의 拔文을 통해서 대략 알 수 있다 즉 「鄉藥救急方は 效果가 많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매우 利롭다. 여기에 실린 여러가지 藥은 모두 우리 나라 사

람들이 쉽게 알고 또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脈藥法에
알맞으며 또 시험해 볼 것들이다. 서울과 큰 도시에는 醫師가
있으나 대개 외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급작스러운
病을 얻게 되면 형편이 매우 급하여 좋은 醫師를 불러오기
곤란하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만일 이 책만 있으면 扁鵲이나
醫緩 같은 훌륭한 醫師를 얻지 못해도 病者를 救할 수 있으
나 힘을 작게 들이고 功을 배나 얻으므로 그 利益이 莫甚하
다. 옛날에 大藏都監에서 이 책을 刊行하였으나, 오래되자 板은
색고 그 때 나온 책은 보기 드물게 되었는데 지금 義興 監
郡 崔自河가 重刊하여 은혜를 널리 퍼기 원해서 秘藏했던 善
本을 내어 監司인 李之剛에게 아뢰니 監司는 곧 목공에게 새
가도록 命하고 崔를 縣監으로 任命하여 그 뜻을 이루도록 했
다. 그리하여 閏五月에 始作해서 七月十二日에 손을 떼나 때는
皇明 永樂 丁酉(1417) 七月이다.」

이것으로서 鄉藥救急方이 이때 高麗의 大藏都監에서 刊行된바
있으며, 지금의 것은 李朝 太宗 17年(1417)에 重刊된 것임
을 알 수 있다.

大藏都監이라 함은 高麗의 高宗이 第二次로 大藏經을 새기기
始作하면서 設置한 관청이므로, 鄉藥救急方의 初刊本은 아마 高
宗 23年(1236)에서 大藏經이 完成된 38年(1251)까지의
15年 동안에 그副産物로 나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과
연 이 重刊本이 初刊本과 그 内容에 있어서도 꼭 같은 것이
지는 斷言할 수 없으나, 跋文에 記錄된 바를 미루어 큰 변동
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 高麗때의 醫書로서 散佚되지 않
고 完本이 남아 있는 것은 없으므로 鄉藥救急方이 우리나라에
서 現存하는 것으로는 가장 오래 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이 책은 世宗 9年 (1427)에 羅州牧事 黃子厚의 請으로 忠淸道에서 刊行되었음을 李朝實錄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太宗 17年 重刊本뿐이다.

이제 그 內容을 目次를 통해 살펴 보면 上卷에는 食毒을 비롯하여 肉毒, 菌毒, 百藥毒, 蠃毒, 骨蠲, 食噎, 卒死, 自縊, 熱湯落水, 中酒, 斷酒, 墮折, 金瘡, 喉痺, 重舌, 齒齲等에 關한 것으로 모두 18項이며, 中卷은 丁瘡를 비롯하여 癰疽, 腸癰, 凍瘡, 惡瘡, 漆瘡, 湯火瘡, 丹毒瘡癰, 代指瘡, 癰疽, 附骨疽, 癰疥, 癰瘡, 箭鏃木竹籤刺, 痔漏腸風, 心腸痛, 冷熱痢, 大小便不通, 淋疾, 消渴, 小便下血, 陰癰陰瘡, 鼻衄, 眼病, 耳病, 口唇病等 주로 外科的 疾患을 다룬 25項으로 되어 있다. 끝으로, 下卷에는 婦人雜方을 비롯하여 小兒雜方, 小兒誤吞諸物, 水腫, 中風, 癲狂, 瘧疾, 頭痛, 雜方, 服藥法, 藥性相反, 古伝錄驗方에 關한 12項으로 되어 있고 附錄으로는 180種의 鄉藥에 關하여 簡單한 說明을 붙인 「方中鄉藥目草部」가 있다. 이 가운데 重舌, 齒齲, 口唇病等이 齒科疾患에 關한 것이며, 이 밖에도 婦人雜方이나 小兒雜方에서도 단편적인 疋과 知識을 엿볼 수 있다.

御醫撮要方은 茶方에서 모든 藥方이 오랜 세월로 거의 없어져 감을 哀惜히 여긴 崔宗峻이 高宗의 勅을 얻어 高宗 13年 (1226)에 다시 편찬하여 半壤에서 刊行된 것임을 李奎報의 著書를 통해 알 수 있다. 지금은 伝하지 않으며 오직 鄉藥集成方에 十餘首 引用되어 있을뿐인데 그 가운데 齒痛을 다스리는 荊芥湯이 남아 있다.

三和子鄉藥方은 高麗末期의 著書로서 누가 지은 것인지 알

수 없으나 鄉藥簡易方, 鄉藥濟生集成方, 鄉藥集成方 등의 最初의 原本에 해당됨을 陽村集에 실린 推近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지금까지 伝하지 않음은 무론이나 다행히 鄉藥集成方 가운데 近 200 首가 採用된 있는데 그 속에 齒科疾患에 관한 9 首가 포함되어 있다.

鄉藥簡易方은 고려 말기에 權仲和가 徐賡에게命하여 三和子 鄉藥方의 短點을 보충케한 것이다. 이것 역시 지금은 伝하지 않고 鄉藥集成方に 50 首 採用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6 首가 齒科에 関한 것이다.

Ⅲ. 齒科疾患과 治療

鄉藥救急方を 비롯한 御醫撮要方, 三和子鄉藥方, 鄉藥簡易方 등에 기록된 齒科疾患에 関한 內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原文(漢文)에서 採운 말로 옮겨 보기로 하겠다.

鄉藥救急方 上卷 17 項 重舌

目次에는 重舌만을 기록했으나 本文의 제목에는 重舌 다음에 口瘡이라는 두字가 더 첨가되어 있고, 작은 글씨로 「重舌이라는 것은 혀 밑 속에 혀 같은 것이 또 하나 더 붙어 있는것」이라는 註解가 붙어 있다.

그 다음에는 곧 治療法이 열거되어 있는데 重舌에는 ① 배암의 혀물(蛇脫皮)을 비워 그 카루를 파르고 또 ② 솔 밑바닥의 蠃(伏龍肝)을 카루로 만들어 우엉(牛蒡)즙과 함께 섞어 바르면 좋고, 어린애에게 重舌이 생겼을 때는 ③ 사슴뿔 카루(鹿角)를 혀밑에 넣어 두면 3.4 日 뒤에 낫는다고 했다. 또 ④ 붉은 팥(赤小豆) 카루를 조에 해서 파르거나, ⑤ 부들꽃 카루

(蒲黃)를 혀 밑에 바른다고 했다.

木屑에는 ⑥솔밭 검정(煤炭)을 조에 화서 바르고 침을 빨
으며, 또 舌腫에는 혀가 갑자기 붓고 돼지의 오줌통처럼 되어
(豬胞狀) 입에 가득 찼을 때는 ⑦솔밭 검정에다 소금을 조금
섞어 부드러운 카루로 만든 뒤 조에 화서 혀 밑에 바르면
낫는다고 했다.

그리고 복구명(喉中)이나 입과 혀에 부스럼이 생겨 외부가
벗겨졌을 때(口舌生瘡爛)에는 ⑧藜荷를 술에 담구어 그 물로
漱漱하면 낫고, 혀에 부스럼이 생겨 벗겨졌을 때(舌生瘡爛)
에는 ⑨甘草, 淸蜜, 豬脂를 발여 자주 사용하면 神效하다고
했다.

18 項 齒 疳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目次에는 齒疳만 기록되어 있으나 本文
속에는 齒疳뒤에 腫과 齒痛이라는 것이 첨가 되어 있어 여기
에서는 주로 齒牙硬組織疾患을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먼처음엔 養齒法이 기록되어 있는데 ⑩皂莢과 挺鹽을 불에
태워 카루로 만들어 밤마다 이를 닦으면 한달 뒤에는 움직이
던 치아가 튼튼해진다고 했다.

「牙齒疼」에는 ⑪버들가지(柳枝)를 잘게 썰어서 소금을 녹
여 달인 물을 머금고 있으면 되고, 참을 수 없는「齒痛」에는
⑫닭똥의 흰부분(雞屎白)을 태운 카루를 술에 싸서 아픈곳에
들면 낫는다고 했다. 또 ⑬쇠 무릎지기(牛膝)를 태운 재(灰)
로 이를 닦아도 좋으며「牙痛」에는 ⑭붉은 찹쌀을 벗긴 무늬
씨를 갈아서 人乳汁과 섞은 것을 왼쪽니가 아프면 오른쪽 코
에, 오른쪽니가 아프면 왼쪽코에 넣으면 낫는다고 했다.

또 ⑮皂莢子 가루를 솜에 싸서 醋에 넣어 삶은 것을 아픈
니에 물고 있다가 식으면 바꾸는 것도 神効하며 ⑯피꽃나무(
枸杞) 껍질을 醋에 삶아 그 물을 뜨거울 때 물고 식으면 배
알아 버리면 낫는다고 했다.

참을 수 없는 「齲齒痛」에는 ⑰복숭씨(桃仁)를 태워 아픈 나
에 물면 되고 ⑱馬夜目을 솜에 싸서 붙어도 좋다고 했다.

잇몸이 붓고 아플 때에는(齒根腫痛) ⑲우엉뿌리 즙에다 소금
을 넣어 銀工릇 속에서 膏藥이 되도록 달여 잇몸에 바르면
심한 사람이라도 불과 3~5次에 낫는다고 했다.

그리고 齲齒에는 ⑳산이스랏나무(郁李) 뿌리의 흰 껍질을 물
에 삶아 진한汁을 뜨거울 때는 물고 차면 배알아 버리는데
齲齒라는 것은 벌레가 齒牙를 먹어 구멍이 있는 것이라 했다.
벌레먹은 구멍 속에는 ㉑松脂를 錐와 같이 뾰족하게 만들어
넣으면 낫고, 또 齒齲에는 ㉒雀麥을 쓴박잎(苦瓠葉) 30枚의
이슬에 씻어서 길이 2寸, 넓이 1寸, 두께 5分으로 잘라 박
잎에 싸서, 3年 묵은 초에 담가 두었다가 한 낮에 두개를
꺼집어 내어 뜨겁게 구워 입속과 齒外辺를 머리고 식으면 바
꾸어 한 뒤 물담근 銅器속에서 그藥봉지를 붙여보면 벌레가
많으면 2.30枚, 적으면 1.20枚가 나오는데 늙은 늙은 누
른 색이고 어린늙은 흰색이라고 했다.

이가 올라 오지 않을 때(牙齒不生)에는 ㉓민저 쇠를 찢러
피가 조금 나오게 한 뒤 쇠뿔 속의 공을 파운 가루를 파르면
되며 ㉔같은 분량의 수락뿔과 암탁뿔을 파르면 老人은 20日
젊은이는 10日만에 나온다고 했다.

「牙齒宣露挺出」에는 ㉕生地黃을 나무절구에 찧어 소금을 섞
고 밀가루로 반죽을 하여 숯불에 구운 것에 사향을 넣어 가

루로 만든 것을 잇몸에 부치면 좋으며 齒牙가 움직일 때 (牙齒動搖)는 ②④皂莢을 태운 가루를 生地黃汁에 삶아 계란 크기로 반죽을 하여 다시 불에 태워 가루를 만들고, 또 地黃汁을 삶아 다시 태우기를 세번한 뒤 가루로 만들어 齒牙에 부치면 神効하다고 했다.

中卷 25項 口唇病

입이 마르고 열이 있을 때에는 ②⑦石膏와 물을 물에 넣어 달인 것으로 含漱를 하며 口唇이 乾燥하고 心神과 頭目이 不利할 때에는 ②⑧겨우살이풀(麥門冬)즙과 淸蜜, 매추마위를 瓶 속에 넣어 찌서 한 숟가락씩 먹는다고 했다.

唇瘡에는 ②⑨동쪽 壁의 마른 흙가루를 파르며 또 ③⑩삼씨(大蘇子)를 태운 가루를 井華水에 개어 바르다고 했다. 唇緊面腫에는 ③⑪쇠비름(馬齒莧)汁을 바르면 낫고. ③⑫말뚝구리를 태운 것도 藥이라고 했다. 끝으로 緊唇 또는 潛唇은 口唇腫인데 ③⑬松脂를 기름에 녹여 較히게 해줘 바르면 낫는다고 했다.

下卷 1 & 2項 婦人 및 小兒 雜方

먼저 婦人雜方項에는 產後에 中風으로 口噤 및 牙關緊急을 이르렀을 때와 또 혀가 오그라드는(舌本縮) 때는 ③⑭荊芥穗와 ③⑮芥子が 各々 藥으로 使用되었다.

小兒雜方項에는 小兒의 重舌에 ③⑯黃丹가루를 콩의 크기 만큼씩 혀 밑에 바르고 酸을 먹여 이가 곪을 때(齒齲)에는 ③⑰호두를 잘게 씹으면 된다고 했다.

그 밖의 醫書들

御医撮要方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오직 荊芥湯 한��만이 鄉藥集成方 齒牙門에 採用되어 있다. 곧 찹을 수 없는 「齒牙風寒痛」에는 ③정가(荊芥)와 川椒를 볶은 소금과 함께 말여서 뜨거울 때 떠금고 있다가 식으면 빼알아 비리고 돼지고기, 물고기, 마늘, 醋마위를 삼가도록 한 것이다.

三和子鄉藥方은 모두 9首가 남아 있으나 그 가운데 두首는 鄉藥救急方의 ③과 ⑧의 內容과 꼭 같다. 나머지 7首를 보면 重舌에 ③薤菴뿌리를 찢어서 혀 밑에 바르며 「唇口破裂」의 ④밤나무(栗木)의 두꺼운 껍질을 가루로 만들어 뜨물에 타서 바른다 고 했다. 또 口臭에는 ④괴쫂나무(枸杞)를 달인汁을 마시 며, 「齒疳」에는 ④잉어의 담(鯉魚胆)을 솜에 싸서 잇몸에 부치고 「口鼻急疳」에는 ④藍澱를 바른다고 했다. 잇몸이 헤어져서 出血이 되면(齦爛出血) ④거철가리의 뿌리(升麻根)를 물고 있거나 ④들장미 뿌리를 물에 달여 물고 있도록 했다.

鄉藥簡易方은 잇몸이 붓고 아플때(齒根空腫痛) ④소나무(松) 칩백나무(柏), 회화나무(槐)의 가지를 태운 것을 벌레먹은 구멍 속에 넣었다가 빼내면 벌레가 따라나와 낫는다고 했다.

어린아이의 鵝口에는 ④밤송이를 井華水에 삶은 진한汁을 젓가락에 묶은 솜에 묻혀 바르는데 밤송이가 없으면 밤나무껍질을 代身사용해도 된다고 했다. 그리고 어린애의 口瘡에는 ④蒲黃과 흙을 얹은 매미허물가루를 꿀과 함께 시루 위에서 김을 쏘인 후 입속에 바르는 것을 비롯하여 ④두여머조자기(南星)를 醋에 갈아 발바닥에 바르고 또 ④吳茱萸를 태워 醋에 타서 발바닥에 바른후 효과가 있으면 씻어버린다고 했다. 끝으로 ④큰밤을 삶아서 每日 먹는 것이 또한 매우 효과가 있다고 했다.

IV. 綜括 및 考按

高麗時代의 우리 醫書로서 지금까지 伝해 내려오는 鄉藥救急方과 그밖에 이미 散佚된 御醫撮要方, 三和子鄉藥方, 鄉藥簡醫方의 遺方을 中心으로 하여 살펴본 齒科疾患에 관한 當時의 知識은 위에 紹介한 바와 같거니와 여기에서는 現代齒科學의 知識으로 當時의 病名과 治療法을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重舌」에 관한 문제이다. 鄉藥救急方에는 「혀 밑에 혀같은 것이 또 하나 더 붙어 있는 것」이라고 했을 뿐이다. 그러나 宋나라의 瘡瘍全書에는 「혀 밑에 작은 혀가 또 하나 생긴 것으로, 그色은 鮮紅이며 혀 밑에 硬核이 있는 乳腫」을 보인다고 했으며, 明나라의 證治要訣에는 「外有舌暴腫脹」이라고 하고, 醫學入門에는 「舌腫이 입에 가득하여 소리를 내지 못하고 飲食을 먹지 못하는 것을 重舌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康醫室鑑에는 「舌根에 붙어서 다시 작은 혀가 생긴 것을 重舌이라 하는데 針을 찌러 나쁜 피를 없애면 곧 낫는다고 했다. 이것으로 重舌은 口底炎이나 *Ranula* 와 같은 것이 아닐까싶거니와 重舌의 治療에 있어 蛇脫皮를 비롯한 伏龍肝, 鹿角, 赤小豆, 蒲黃, 黃丹, 薄荷 등 여러가지 藥物만을 사용하고 外科的인 治療法을 찾아 볼 수 없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木舌은 瘡瘍全書에 「硬度가 穿山甲 (鱧鯉) 같고 찬것을 싫어하고 뜨거운 것을 좋아하며 (壯熱) 言語가 蹇澀하다」 했으며 朱震亨心法에는 「木舌은 혀가 腫硬하여 和하고 軟하지 않은 것」이라 했고 醫學入門에는 「舌腫이 입에 가득 차서 氣를 만하지 못하는 것」이라 했다. 또 樓英의 醫學綱目에 「木舌은 舌腫이 粗大하고 漸々腫硬하여 입에 가득 차는 것이니 빨리 고쳐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으며, 景岳全書에는 「忽腫水而硬者, 謂之水腫」라 하여 모두 한결 같이 혀가 단단하게 됨을 말하고 있다. 水腫이라는 말도 혀가 나무와 같이 굳어지는 데서 나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같이 혀가 굳어지고 입에 가득차게 되는 증상을 아울러 생각할 때 水腫이나 舌腫은 一種의 舌炎이 아니까 싶다.

그 치료법에 있어 솔밭 점점을 醋에 차서 바른다는 것만으로는 과연 효과가 있었겠는지 의심스럽다.

口舌生瘡는 부위에 따라 口瘡 혹은 舌瘡이라고 하는 것으로 永廉亭心法에는 「대개 口舌生瘡는 上焦에 熱이 막혀 있기 때문」이라 하였고, 薛己의 口齒類要에는 「口瘡은 上焦의 實熱과 中焦의 虛寒, 下焦의 陰火가 伝移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戴思恭의 證治要訣에 역시 「口舌生瘡는 모두 上焦에 熱이 막혀 있기 때문」이라 하였고, 景岳全書 역시 熱과 지나친 酒色이 原因이 된다고 했다. 石室秘錄에도 「心火鬱熱」이나 「心經熱」이 그 原因이라 하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舌瘡이 생겨 노란 靨이 結成되어 음식물을 먹기 곤란한 것은 「心熱」 때문이라 했다. 이와 같이 上焦熱 곧 心熱과 지나친 酒色때문에 「口舌에 瘡이 생긴다」는 것과 음식물을 먹기 곤란하다는 것을 보아 熱性疾患이나 全身倦怠로 말미암은 口內炎을 연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치료에 있어 甘草와 淸蜜등 糖分이 많은 약을 사용했음은 元氣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口舌生瘡」의 치료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러나 蒲黃, 蟬蛻, 南星, 吳茱萸, 大粟 등은 아직 어떠한 藥効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口瘡의 치료에 효과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口乾熱」이나 「口舌乾燥」에 淸蜜이 포함된 藥을 사용했음은 의로회복이라는 面에서 理解할 수 있는 일이나 입속의 熱感을 가져오게 하는 根本原因이 淸蜜정도로 고쳐지 어려운 熱性疾患이었을 때에는 ㉞이나 ㉟같은 것으로도 별효과가 없었을 것이다.

口臭은 입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인데 医学入門에는 「胃熱」 때문이라 했고, 景岳全書에도 「胃火」 때문이라 했다. 이것은口臭의 여러가지 原因 가운데 소화기계통 특히 胃疾患만을 파악한 것으로 생각 된다. 그리고 枸杞를 다려 먹는 치료법은 枸杞가 옛부터 強壯劑로 쓰여진 것으로 머루어 合理的인 生覺이라고 여겨지나 물론 어떠한口臭에도 다 효과를 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養齒에 소금이 포함된 가루를 사용하였음은 지금도 소금이 齒藥머신으로 널리 사용됨을 보아서라도 능히 理解할 수 있다.

「齒痛」 혹은 「牙齒疼」, 「牙痛」 등은 病源候論 이후 사용되어온 齒痛의 分類法이나 事實에 있어 아무 區別을 찾아 볼 수 없다. 鄉藥救急方에는 齒痛에 관한 處方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치료법은 주로 柳枝, 郁李, 枸杞等を 달인 물로 하는 것과 雞屎白, 桃仁, 馬夜目等を 아픈 곳에 물고 있는 것이고 그 밖에 牛膝을 태운 재로 이를 닦거나 皂莢子가루로 아픈 곳을 뜨겁게 하며, 芫荽가루를 콧구멍 속에 넣는 것이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여기에 사용된 大部分의 藥草는 아직 그成分이 宛明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효과를 밝힐수 없음이 유감이나 뜨거운 藥液으로 含漱를 한다는 것은 急性炎症의 初期에 消炎을 시켜 주었을 것이므로 어느 정도 효과를 얻었을 것이다.

齒齦 혹은 齒齦은 齦齦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 왔다. 곧 齒牙의 硬組織이 파괴되어 구멍이 생기게 되는 현상을 벌레가 齒牙를 갉아 먹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벌레를 잡기 위해 雀麥을 사용하였다. 雀麥은 鄉藥救急方의 부록인 「神鄉藥耳草部」에 「主齒齦」이라 했음을 보아 當時에는 齒齦을 없애는 主藥으로 사용되었음을 짐작하겠으나 없는 齒齦이 2, 30枚씩 나옴의 만무하다.

그리고 벌레 먹은 구멍에 松脂나 松栢槐枝를 넣었다가 꺼집어 내면 벌레가 나온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齒牙가 올라오지 않을 때 소나 닭의 똥을 바른다는 것은 無意味한 것이나 먼저 齒을 찢어 괴를 틀리게 한다는 것은 어린 아이에 있어 粘膜을 절개해 주므로 齒牙의 萌出을 촉진시키는 것과 연관성을 맺을수 있을것 같다. 그러나 老人의 경우에도 20日만에 齒牙가 올라온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다.

齒齦腫痛은 잇몸이 붓고 아픈 것을 뜻하는 것으로 齒齦炎을 의미하는것 같다. 여기에 우엉뿌리를 사용한 것은 어느정도 效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우엉뿌리에는 鞣酸이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는데 收斂作用이 있어 增殖性齒齦炎과 齒齦充血때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V. 結 論

지금까지 남아 있는 우리 醫書 가운데 가장 오래된 鄉藥救急方에는 齒科疾患으로서 오늘날의 口底炎이나 *Ranula*를 연상케하는 重舌를 비롯하여 永舌, 舌腫, 口舌瘡, 唇瘡, 唇緊等 여러가지 口腔軟組織疾患과 齒痛, 齒牙動搖, 齒齦炎, 齒牙萌出障礙에 관한 치료법이 기록되어 있으나 그大部分의 藥材는 아직 科學

의으로 成分이 밝혀져 있지 않아 치료의 效果與否를 판단할 수 없었다. 몇 가지의 治療法은 어느정도 合理性을 띤 것이라 볼 수 있으나 雀夢으로 齒出을 잡아버리는 것等は 幻象적이며 미신적인 것이었다.

그 밖에 고려시대 醫書를 통털어 보아도 齒牙萌出障礙에 針을 찌러 피가 조금 나게한다는 것以外에는 전혀 外科的인 치료법을 찾아 볼 수 없을뿐더러 補綴學方面 역시 조금도 고려되지 않았다. (崔 鎮 煥)

參 考 文 獻

- (1) 三木 榮 : 朝鮮醫籍考, 中外醫事新報, 1934, 282~283.
- (2) 橘井清五郎 : 韓板鄉藥救急方, 書誌學 6卷 6号, 1936.
- (3) 金 斗 鍾 : 韓國醫學史, 正音社, 1955, 238~239p.
- (4) 三木 榮 : 朝鮮醫書誌, 1956, 7~10p.
- (5) " : 朝鮮醫學史, 第2編 57~59p. 1955.
- (6) " : 朝鮮疾病史, 1955, 15~20p.
- (7) Kim, Doo Jong : Bull. Korean. Research, center. 1960. 35~36p.
- (8) 小泉榮次郎 : 增訂和漢藥考, 朝香屋書店, 1927.
- (9) 刈米 & 木村 : 和漢藥用植物, 玄川書店, 1954.
- (10) 小倉進平 : 增訂朝鮮語學史, 1940, 325p.
- (11) 鄉藥救急方
- (12) 御醫綱要方、鄉藥集成方에引 用
- (13) 三和子鄉藥方, " "
- (14) 鄉藥簡易方, " "
- (15) 寶漢卿 : 瘡瘍全書
- (16) 戴思恭 : 證治要訣

韓國學校齒科의 發達

金 永 熏

韓國齒科醫學이 體系化되기 前인 1918年頃부터 咸錫恭, 野田応治, 柳樂達見等諸氏は 口腔衛生思想啓蒙을 爲하 學校內 健康教育을 實施하여 許多한 功獻을 했다. 비록 行政的으로 絶對的인 協助는 얻지 못하였지만 當時齒科醫師數名은 學校保健과 兒童健康管理問題에 對하여 關心이 至大하와 있었다. 筆者 이에 關한 資料를 地方에 存在 先輩先生任들의 協助를 얻어 未備한 內容이 나마 卞先一次로 発表 하고 追後的으로 史料를 調査하여 執筆할 것이다. 本內容에 協助하 여 주신 서울李通柱, 洛州金秉式, 水原李昌鎔, 忠南張博, 全南丁達秀, 忠北朴昌熙等諸先生께 感謝하는 바입니다.

〔解放以前〕 1945年以前齒科罹患者率一部

年度	調査者	調査學校	被檢者	罹患者率	次當調査	備考
1908	野田応治	日出小學校 日人 (4名)	515	96	男 35 女 6.0	本誌 No. 1.
"	"	南大門小學校 日人 (4名)	527	97		"
1914	柳樂達見 垣見庸三	韓國學堂		都市 35 地方 10		口 述
"	"	日人		96		"
1924	咸錫恭	桜井小學校 (現 명동)	963	99		本誌 No. 1.
1938	堀武外 數名	韓國人青年	418	34.62	0.77	齒醫界 4卷 2号

1940年 서울特別市齒科校医配置現況

1. 韓國人學校 1948國民校中 現舊國民學校齒科校医 文箕三
現校網國民學校齒科技医 趙明鎬 (外一校不明)
2. 日本人系國民學校 齒科別齒科技医를 發給證發給

〔解放以後〕 1960年度大韓齒科醫師協會長으로 卑러 學校齒科發展에 功獻한 勞苦로써 表彰을 받은바 있는 金相讚(釜山), 徐永圭(江華)

崔海雲(原北), 朴昌熙(忠北), 金鍾玉(서울), 等諸氏は 学徒들 口腔衛生思想發展에 至大를 貢獻者들이 다. 特히 1958年度 서울特別市齒科醫師會任員들의 獻身的勞力으로서 서울特別市 議會에서 (國民學校齒科診療室設置條例) (本誌 1960年 No. 1号 發表)를 通過를 본것은 우리公衆保健에 일하는 齒科醫師들에 永遠의 記憶에 남을것이다.

保社部 學童齲齒予防措置 保健社會部醫政局齒醫務課長(1961年) 吳應瑞氏와 前任者 齒醫務課長署理姜國馨兩氏의 計劃으로 우리나라 國民學校兒童들의 齒牙齲蝕症予防事業의 第一次年度企劃으로 서울特別市內의 局限하여 10個校에 7,000名에 對하여 弗素塗布를 實施하였다. 第二次(1962年度) 弗素事業은 保健社會部醫政局醫務課 金南奎齒醫務係長(當時는 齒醫務課長課長이었음) 企劃으로 全國 11個校를 模範 合計 10,683名에 對하여 弗素塗布를 實施하였다.

(서울特別市) 1960년에 齒科大學小兒齒科敎室 車文豪敎授의 「서울德壽國民學校兒童齲蝕罹患率」(齒科會報 10号), 釜山赤十字病院齒科科長 金熙默先生調查 「韓國人少女의 齲蝕症의 統計的觀察」(齒醫界 No. 2号), 1960年度 서울日新國民學校齒科技醫 金永熏調查 「서울日新國民學校兒童口腔疾患實態調查」(齒科會報 No. 9号), 延世大學醫科大學 齒科學敎室發表 「서울南大門國民學校兒童虫齒罹患率」(齒科會報 No. 10号), 1962年 大韓齒科醫學會發表 (齒大小兒齒科敎室 車文豪, 李赫) 「兒童弗素予防措施結果」等은今後學校保健系履歷에 重要한 資料가 된것이다.

(서울特別市學校健康管理所) 1945年9月創設된 學校保健所는 1963年1月 保健所法改正에 依하여 其名稱이 學校保健管理所로 改稱 齒科施設과 齒科醫配置은 1958年11月7日 金昌鉉先生이 就任(專任醫) 現在 9個區 專任齒科技醫과 같이 学徒口腔保健向上에 努力中에 있다

(1962年6月以後 動態) 軍事革命政府下 서울特別市長尹
 泰日氏는 學校保健의 建設的發展을期하고져 從來의 各學校當 囑
 託制度를 廢止하고 서울市内 9個區에 各1名의 齒科技醫를 專
 任制로 配置할企圖으로 齒科技醫를 公募하였던바 24名의 応募者中
 (試驗科目·小兒齒科學, 口腔衛生學) 9名을選拔 其齒科技醫로하여
 금 서울市各級學校를 巡迴診察함과 區單位로 1個校에다 齒科診
 療施設을 固定, 兒童들의 集結診療制를 實施中이다.

(京畿道)

◦校醫制度 = 現在 1962年度까지 年例 口腔保健週間中 臨時委囑制이
 나 1960年 水原市에서 開業하시며 當時齒科醫師會々長이신 李昌
 鎔氏가 教育委員會副會長就任以來 法的制度化에努力中 軍事革命으
 로 中斷되었음

◦齒科施設校 = 없음, ◦校醫數 1名 (國立保健院校醫訓練修了者)

◦齲蝕罹患率 = 水原市國民學校兒童이 90%이며 (李昌鎔) 1947年
 에서 1949年間 筆者가 江華郡內各國民學校兒童口腔檢査結果 55%
 였음은 當所々屈 仁川齒科醫師會에 報告하였음

(忠清南道)

1945年以前事實에對하여서는 明確치않으며 1960年度에 大
 田市 中央國民學校에 施設을具備以來 주로 6.9 行事를通하여隨時
 委囑 何列의學校齒科醫制를 實施하여왔다.

◦齲齒罹患率 80%, ◦齒科技醫數 64名, ◦學校齒科에 黃南緒
 文章益, 許甲伊

(忠清北道)

1962年 現在 朴昌熙, 李世振, 金學聖, 鄭海鵬, 趙誠俊, 徐永錫
 諸先生이 清州市內學校醫로 各々任命되었음

◦施設完備校 = 清州, 舟城, 扶東, 中央, 石橋, 韓山, 德城, 清南, 南

城의 各国民学校에 簡易治療施設이 完備되었음

◦ 齲蝕罹患率 = 約 60%, ◦ 任命校医數 = 8 名,

◦ 功献者 = 朴昌熙, 李世根, 金學聖, (本欄 朴昌熙先生提供)

(全羅南道)

1954年以前에 罔한 學校齒科史는 明確치 않으나 1962年度 現在
까지 當道齒科醫師會役員陣의 努力으로 1963年內에는 當道知
事發令으로 正式 全道內各級校齒科技醫委任令이 實現한다.

◦ 校医制度 = 1963年度부터 正式實施予定. ◦ 齒科施設完備校 = 全南
教育大學附屬國民學校. ◦ 齲蝕罹患率 = 正確한 數字는 없으나 丁達秀
氏(1960年) 大黑島調查結果 成人 60%, 學校 60% 로 (大韓齒醫
報第30號에 丁達秀氏報告) 記錄되었음. ◦ 校医數 = 光州市內에 20名
(國民學校에 限하여) 配置 (1962年以前)

◦ 有功者 = 1963年 6月에 推選決定되었으나 全南道齒科醫師會 代
任員陣의 功献이 顯著하다. (丁達秀氏提供 1963. 1. 23)

(濟州道)

◦ 校医制度 = 道當局으로부터 隨時로 臨時囑託医制度로 主로 年例口腔
保健週間에 限하여 實施한다. ◦ 齒科施設校 = 없음, ◦ 齲蝕罹患率 = 國
民學校 및 中高校生 70% (金秉式氏調查), ◦ 校医數 = 3 名,

◦ 有功者 = 濟州齒科醫師會長金秉式氏의 獻身的 努力으로 1950年以
後부터 当地教育當局, 放送局, 言論機關의 協助下 1963年內에는
正式校医發令이 制度化될段階에 있음 (金秉式氏提供 63. 1. 24)

(學校齒科醫會 (서울))

第1回齒科技醫訓練生修了式直後인 1959年 12月 17日下午 10
時 15分 國立保健院 大講堂에서 修了生 80余名과 講師陣 및 大韓
齒科醫師協會, 서울特別市齒科醫師會 各長田 席下 서울特別市學校齒
科醫會 發足準備를 爲하 發足회가 開催되었다.

◦ 勸議者 鄭大受, 政議者 李迥柱, 兩氏의 提議로써 서울特別市學校齒科醫會準備委員會 稱號와 設置準備委員으로 하여금 對外交渉과 校醫會創立總會準備에 因한事項을 贊成 2/3 票로可決하였다.

◦ 創立總會任員 = 會長 林榮俊, 副會長 車文豪, 鄭大受

◦ 第一回定總會任員 = 會長 鄭大受, 副會長 徐丙端

◦ 校醫會自動解体 = 1962年 7月 9日附 서울特別市長 尹泰日 命에 依하여 (市교 제 6023 호) 校醫會 齒科技醫解強通報에 依하여 其機能이 停止되었으나 1963年 1月現在 創立以來滿 21年間 22件의 務處理, 発信事務 23件 理事會 創立以後 9回의 會務處理의 業跡을 남기고 事實止解体期에 있다. (筆者 京仁齒科院長, 1922年全南長興胎生, 日本関西齒科技工學校卒業, 大韓小兒齒科學會副會長)

近代矯正齒科學의 아버지

Norman W. Kingsley (1829~1913)

10月 26日에 뉴욕주 St. Lawrence County에서 태어나 아버지인 A.W. Kingsley 밑에서 킷과를 공부하다가 Baltimore 킷과학교를 다녔다 D.D.S.學位를 받았다 그는多才多能하여 솜씨 있는 킷과 의사였을뿐만 아니라 훌륭한 著述家였고 세련된 조각가였으며 또한 發明의 天才였다 킷과계에서 最初로 인정 받게 되기는 그가 조각한 陶齒의 解剖學的形態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에서 입상된 뒤부터였다 그는 킷과계에 投身한 뒤 일찍부터 矯正齒科學에 많은 관심을 두었으며 이方面에 관하여 쓴 그의 最初論文은 “咬合을 띄어 묶는” 수술법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齒牙의不正咬合에 關하여 最初로 科學的인 治療法을 說明한教科書인 “口腔畸形論”을 1880년에 發刊하였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토마스 W. 이반스 박물관에는 그가 조각한 가장 우수한 그리스도의 胸像이 남아 있다.

〔特輯〕 齒科教育四十年의 反省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치과교육이 시작된 것은 京城齒科醫學校가 創設된 뒤부터이다 京城齒科醫學校는 지금으로부터 꼭 40年前인 1922년에 設立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치과교육도 4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2年制의 夜間學校에서부터 出發한 이 齒科教育機關이 4年制 專門學校를 거쳐 지금의 6年制齒科大學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困難과 難關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아직도 唯一한 齒科教育機關의 發展과 韓國齒科教育의 向上에는 여러가지 反省點이 없지 않다고 본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40年동안의 우리나라 치과교육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는 意圖에서 이方面에 關心있는 분의 글을 한데 묶어보기로 했다.

京城齒科醫學校創設記

柳 樂 達 見

내가 1945年 11月 15日 龍山驛에서 故國 日本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學生諸君이 十名程度 學校를代表한 送別과 送別辭를받았던일은 只今生覺하여도 感慨無量한바 있습니다. 그때 學校에서는 바로 教育會를 開催하고 있어 學生諸君이 代表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17年間 그리웠던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은 나의 가장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17年間은 日本에 있어서나 正韓國에 있어서도 大端히 變化가 많은 해들이었으며 苦難의 해였습니다. 나는 그리운 韓國에 다시

을 수 없으리라 斷念하든次 今番 美軍의招待에 依하여 齒科醫學會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1959年 8月에 日本腦炎에 걸려 人事不省이 되기 2週間, 도저히 生命을 건지기에는 不可能하다고 여러사람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행히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오늘의 健康을 찾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日本腦炎에 걸리면 後遺症이 남는 것이 보통이라 하겠습니까. 나도 대체로 完全히 治癒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記憶力喪失症이 남아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것도 充分히 옛날과 같이 이야기 할수 없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으로 朝鮮, 오늘의 한국에 赴任하던 것은 1914년 3月 31일에 京城驛에 도착하였던 것입니다. 三月이라고 하여도 추워서 서리가 하얗게 내리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거의의 사람들은 純白의 衣類를 입고 흙과 鵝이나 白鳥에 같은 美觀이었던 것을 지금도 회상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3月 24일 朝鮮總督府醫院에 藤田院長과 面接하여 同日附로 마음 먹었던 齒科長의 辭令을 받았습니다. 當時 齒科는 外科의 一分科에 屬하였던 것이고 내가 着任後 患者數도 急激히 增加하여 午前8時診療開始 午後六時頃까지 每日診療하였읍니다. 이에따라 医員도 増援받았으며 齒科의 器械도 電氣인전을 購入하고 英國에서 笑氣瓦斯麻醉裝置를 備置하는等 齒科를面目一新하였던 것입니다. 한국에 있어서 新醫學의 發祥地로 朝鮮總督府醫院과 各道에 即 13의 道庁所在地에 道立醫院이 있어 診療에從事하고 있었읍니다. 總督府醫院앞의 大學病院正門入口에 二層建物이 있어 이것은 施療患者를 取扱하는 醫院으로서 있었읍니다. 이 施療 診療室二層에 京城醫學講習所가 있고 여기에 醫學의教育을 가르치고 있었읍니다. 確實히 修業年限 2年으로 卒業하였읍니다.

醫學講習所의 先主은 거의 總督府醫院 先生이 講義를하고 있

있으며 若干의 基礎教育方面은 病院의 稻本先生이 專任하고 있었
읍니다 이와 같이 医療機關이 皆無라 하여도 過言이 아니었습니다
天然痘가 大端히 流行하고 있었고 여기에 種痘法이 施行되어 強制
的으로 種痘가 勵行되게끔 되었습니다 其當時 무엇이 가장 기뻐
느냐 하면 天然痘에 걸리는 일 없이 美顔이 되었다는 것이라 말하
고 있었습니다 1914年頃 韓國에 올時期는 天然痘에 걸린 사
람이 大多數였습니다 1916年에 醫學講習所가 京城醫學專門學校
校로 昇格하여 本格的으로 醫學教育이 實施되게끔 되었습니다
1917年 2月 29日 朝鮮總督府醫院 副官兼 京城醫學專門學校
教授로 任命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醫師의 分布狀態가 극히 稀薄하
였으므로 1922年에 朝鮮總督府 醫師及齒科醫師試驗制度가 設置
되어 나로 朝鮮總督府 齒科醫師試驗委員으로 任命되었습니다
當時는 韓國全境 걸쳐 醫師、齒科醫師의 分布는 極히 稀薄하
여서 없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지 齒
科醫의 養成을 할 것이 急務라고 痛感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로
부터 말씀드리는데 한국이란 옛날의 朝鮮全境을 말하며 只今은 南
北이 二分되어 있습니다 當時 韓國에 있어서 實業界의 重鎮이
었던 富田儀作翁 이분은 鎮南浦에 本店을 가지고 언제나 京城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實로 韓國人에게 사랑을 받아 韓國人은 慈
父와 같이 富田翁을 欽慕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慈善 公共事業에
私費를 던진 有名한 분이었습니다 내가 1921年 3月 富田儀
作翁과 面接하여 齒科醫學校設立의 緊急함을 說明하였습니다 卽
韓國人子弟에 實業教育을 받게 하여 生活의 安定을 하는 것이 무
엇보다도 더 必要하다는 점을 力說하여 共鳴을 얻어 될수 있는
限 盡力할것을 快諾하였습니다 이것이 齒科醫學校創設의 發端이
었습니다 當時 나는 32歲였습니다 富田翁의 快諾을 얻었으므로

므로 校舍問題를 解決하지 않으면 안될 運命에 서게 되었습니다
 第一의 目標을부친곳이 京城藥學校였읍니다 이藥學校를 빌려 夜
 間教育을 하는것이 第一條件이 좋다고 생각하여 그때의 總督府
 醫院長 志賀潔博士와 相談하여 院長으로부터 兪王藥學校長에 交
 渉을 부탁하였는 것입니다 그러나 兪王校長이 빌려주치 아니하
 므로 志賀院長이 그러면 總督府醫院의 建物의一部를 빌려주게
 되므로 教室를 醫學專門學校의教室를 使用하여도 좋다고되었읍니
 다 最初는 校舍도 없었으므로 京城齒科醫學講習所로서 認可申請
 書를 提出하였읍니다 먼저 京畿道庁 學務課를經由하여 總督府學
 務課에 가서 비로소 總督의 認可가 나오게 되었읍니다 바로
 이書類가 京畿道 學務課에 왔을때 學務課長의 信原聖(小生과同
 郷人)氏는 目下朝鮮에 있어서는 向學心勸興의 때이므로 講習所
 의名義는 곧 齒科醫學校昇格에 禍根을 남기므로 처음부터 京城
 齒科醫學校로서 申請하는편이 좋겠다고하는 注意를 받아 1921
 年11月22日附 申請하였읍니다 1922年4月1日附 學校設立
 의件이 認可된것이 齒科醫學校의 始初입니다.

- 生徒募集 -

學校設立認可와 同時에 生徒募集을 하였읍니다 応募者 百數十
 名內 六十名에對하여 入學許可를 하였읍니다 本校創設에 當하여
 는 韓國人及日本人의 知識階級에 있는者의 贊意를 받았읍니다

특히 韓國人의 貴頭의 分들의 거뵘이란 奧로 言語로 表現하
 기 힘든바 있었읍니다 1922年4月15日 開校式을 總督府醫
 醫院 施療外來의 二層講堂에서있었는데 貴頭 紳士 200名の
 多數가 参列하여 내가 校長으로서 開校式의 式辭를 하였읍니다
 韓國人 貴頭 紳士의 祝辭도 奧로 盛會였읍니다.

- 式後祝賀式 -

總督府醫院의 兩側山腹에 데니스·코트가 있었읍니다 이곳을 祝賀會場으로 盛宴을開催하였읍니다 진달래는 滿開, 動物園의 楊柳는 과룩과룩 샅이 나와 學校前途를 祝福하는듯하였읍니다 이 學校의 特色은 韓國人, 日本人의 男女共學制를 取한點입니다 오늘 날에는 日本에 있어셔도 小學校에서 大學校에 이르기까지 男女共學制가 되었읍니다만 當時로서는 實로 進歩된制度였다고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開校當時는 24年으로 卒業하는 制度로서 校舍關係上 夜間教育을 實施할수밖에 없었읍니다.

여기에 從事하는 職員은 總督府醫院의 職員及 京城醫學專門學校의 教授들이었읍니다 이들의 兼任職員은 本校創設의 宗旨에 贊同하여 모두 無報酬로 獻身的인 努力을 아끼지 않았읍니다

1922年에 夜間에는 充分한教育이 困難하여 專任教授를 招請하여 晝間教育으로 그쳐 34年 修業으로 하였읍니다 萬一 이때 志賀院長이나 吉田事務長의 厚意을 얻을수 없었다면 本校의 成否는 불수 없었을 것입니다.

- 病院開設 -

1924年4月 生徒의 臨床實習을 總督府醫院 外來施療 診療室에 두었으나 여기에서는 到底로 完全한 實習을 施行하기가 不可能하여 1924年10月 黃金町(乙支路)의 日本生命ビル內에 附屬病院을 設置 25年4月15日부터 診療를 開始하였읍니다 이附屬病院의 開設에 있어서 本校의 財政狀態의 困難한事情을 살피어 大井支店長은 多額의 돈을 寄附하여 준것은 감사하기 그지 없었읍니다 當時의 齊藤總督 下岡政務總監은 우리들 私立學校經營의 熱情에 感動하여 1925年4月2日附로써 齒科醫師 規則第一條 第一項 第二号에 依하여 朝鮮總督의 指定校로 되어 本校第一回卒業生부터 無試驗開業의 恩典을 받았읍니다. 本校創立

이 日淺하나 當時 이 制度이 있었든 것은 全然 他校에 類例를 生覺할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1923年 8月 27日 歐美各國에 出張을 任命받아 1924年 7月 14日 啟程하고 이 出張期間 各回學校의 教育狀況 校舍等を 視察하였든 것입니다. 學生들은 專門學校 昇格問題로 自宅에 밤중에 몰려들어서 나를 難堪한 立場을 만들기도 하였읍니다. 나는 一同을 校舍에 集合시켜 「웨이트·앤드·씨-」라는 말을 使用했읍니다. 이와 같은 일을 過去問題로 잊어버리고 있을 때 別々 專門學校에 昇校後 滿洲에 旅行途中 金殷鍾君이 옛날 先生이 「웨이트·앤드·씨-」가 其後 곧 實行에 옮겨졌음을 말하여서 只今도 金君과의 對談을 생각하여 「웨이트·앤드·씨-」가 가슴에 떠오릅니다. 그當時의 學生諸君中에는 이말을 記憶하고 있는분도 多少 있으리라 고 봅니다. 하나의 어려움이 가면 또 다시 어려움이 옵니다.

京城帝國大學 醫學部가 兪足함에 따라 이제까지 借入하였던 京城醫專 建物及總督府醫院 建物을 返還하지 않으면 아니될立場에 이르렀읍니다. 여기서 우리로서는 一大決意가 必要하게 되었으며 나와 富田翁과 相談하여 此際에 學校를 廢止하느냐 存続하느냐의 歧路에 到達하였든 것입니다. 總督府當局으로서는 現在 齒科醫教師數가 적고 亦是 存続하여 學校經營하라는 것이었읍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校舍를 建築할 必要가 생겼든 것입니다. 校舍를 세우려면 官有地를 얻는 方法以外는 없다고 生覺하여 나는 當時 財務局의 官有地係에 가서 學校를 建築하겠으므로 官有地를 얻고싶다고 여러번 係長 大西勵治君에 卜락하였읍니다. 學校와 病院을 같이 建築하겠으므로 시골의土地는 不適當하여 될수 있는마로 市中央部가 患者吸收도 가장 좋으므로 이런데를 희망하였읍니다. 그것이 只今 서있는 서울大學이 있는 土地 即

諸慶宮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벌써 이土地를 京城府가 兒童公園으로 할려고 交渉하여 圖面도 三圖씩 製圖를 그쳐 認可가 날寸前이었읍니다 여기서 나는 이 土地를 내놓고는 他에 適當한土地가 없으므로 京城齒科醫專에 貸附하여 줄것을 再三交渉한 結果 나의 意見에 贊成하여 주어 手續이 完了되었읍니다 바로 이때 總督은 齊藤總督으로 제비바의 會議에 日本全權으로서 가는 그 때에 許可되어 京城府尹이 總督府의 下岡總監을訪問 詰難하여 大問題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벌써 總의 決裁後였으므로 別일 없이 일을 수 있었읍니다 이와 같은 交渉에는 나는 心血을 다하여 盡力하였던 것입니다. 1926年 처음으로 地鎮祭를 行하고 敷地의整理를 行하고 間組가 工事請負人이 되었읍니다.

1927年 3月 初旬 鉄骨鉄筋工事が 이루어 졌읍니다. 最初 殖産銀行에서 十萬圓을 借入하고 나머지는 土地의 無償讓與로 받아 이것을 担保로서 十萬圓의 借入金에 依하여 校舎를 新祝할 計劃이었읍니다 校舎工事に 着手과 同時에 只今까지 貸附를 받고 있는 土地를 無償讓與願을 提出하였읍니다 바로 이때 齊藤總督이 제비바會議에 갔으므로 山梨總督이 新任總督으로 着任되었읍니다 山梨總督에게는 京城齒科醫專을 官立移管으로 하든가 不然이면 보조금을 많이 내서 學校經營이 成立하겠금 請願書를 썼읍니다 山梨總督이란 분은 頭腦明哲한 분으로 五十枚程度の 請願書를 다 본것으로 보며 官立移管과 또 保助金増額の 理由가 무엇이냐고 朱書로 學務課에 돌아왔읍니다 여기서 나는 山梨總督과 面接를 求하여 學校의 새로운 立場을 充分히 說明하고 돌아왔읍니다. 그때 나는 高等官 五等이었읍니다 學校가 危急한 存廢時期였으므로 ‘官職을 버리고라도’ 하는 決意되었읍니다. 내 나이 39세, 그時 山梨總督은 잘 알아보고 相談하자고 하

있읍니다 銀行에서는 土地의 讓與가 없는以上 이제는 貸出은 不可能하다고 하고 以前 말한것 처럼 數地는 京城府에 讓渡할 것을 決定한 것을 橫取한것 처럼 되어 있어 大端히 問題인 土地입니다 財務局長으로서도 곧 無償讓與에 贊成하지 않는 學校는 많은 借金으로써 校舎를 新築하여 借財를 返済하려니 學校의經營은 不可能합니다 學務局이 補助金을 增額하면 土地는 讓渡하여도 좋읍니다 當時의 學務局長 李軫鎬氏는 將來 齒科醫學에 對하여 補助金을 增額할予定이나 只今 곧 決定하기는 不可能하다고 學務長과 財務局長과의 論爭이 되었읍니다 이렇게 되어 最後의 決定은 山梨總督에 依하여 決定을 받지 않을수 없게 되었읍니다 土曜日 午後三時頃 나는 一大決心下에 總督官邸에 山梨總督을 訪問하였읍니다 그리하여 山梨總督에 空地讓問題에 關하여 財務, 學務 兩局長의 意見의 相異로 到底히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으니 이 以上은 總督閣下의 힘에 依하는 方法밖에 없읍니다 나는 元來 營利를 目的으로 學校를 說立한 것은 아니고 韓國人 子弟에 實業教育을 施行하여 一面 生活의 安定과 口腔衛生 向上을 爲히 오늘에 이르는 것인데 오늘에 이렇게 된 以上은 그真相을 新聞紙上에 發表하여 世論의 批判을 기다릴뿐이라는 굳은 決意를 總督閣下에 말하고 힘써 줄것을 부탁하고 나왔읍니다. 그때 山梨總督은 오늘 저녁 各局長이 官邸에 由으로 其時 君의 이야기를 할려고 하니 잠시 기다려와는 厚意있는 말을 받았읍니다 翌日 總督官邸에서 오라는 電話를 받고 뛰어갔읍니다 總督께서 君은 學校일 때문에 대단히 근심하고 있는 모양인데 昨夜 局長에 充分히 말하여 두었으니 근심하지 않아도 좋다는 이야기였읍니다 其後 矢島第一課長(內務局)이 말하는데로 書類를 提出하여 土地도 無償讓與로 되었

교 補助金도 2万円増額の 指令에 接했습니다 나는 25万円の 借金으로서 學校建築을 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志賀院長이 自宅에 찾아오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때 志賀院長이 君이 30万円の 借金を하여 向後 어떻게 經營하여 갈려는 것인가 大端히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사치를하여 使用된 借금이 아니고 公共事業을 위해 万一 벌거숭이가 되더라도 何等 부끄럽게 생각지 않는다 이 일은 배 妻에게도 분명히 들려 주었으므로 걱정하지 말도록 이야기 하였습니다 志賀院長은 그때 君이 그렇게까지 確固한 意志를 가지 있으면 安心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當時의 學校創設의 苦勞는 말로 다 할수 없었습니다 元來 千円の 돈도 없이 學校를 創設한 것이므로 피로웠던 일은 想像에 맡깁니다 1926年에서 1928年頃은 財界의 가장 不景氣인 때였습니다 學校가 이루어질 때는 京城齒科醫專에 多額の 돈을 貸出하였다고 銀行은 新聞에 일어 났었습니다 結局 25万円の 借入金以外 新築中 支拂未納分 3万5千円程度였습니다 當時의 河野會計課長이 未拂請求綴을 校長에 가져와서 先生任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하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徐々히 返済하면 되지 않는나 근심할 것 없다고 하지 하였으나 内心 염려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2年内로 全部 支拂하였읍니다 1929年 1月 25日附로써 專門學校 設立認可가 되었읍니다 1929年 2月 나는 文部省에 가서 곧 文部省 指掟으로 許可되었금 河原勞務課長을 만 次涉하였읍니다 專門學校를 設立하여 곧 認可하는 例는 只今까지 日本의 齒科專門學校에는 例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文部省 — 例에는 專門學校設立者 指掟이 되는 法文이 있지 않는다고 나는 斷乎히 늘어쳤읍니다.

그法文은 낡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그러나 通用하지 않는 法例는 곧 廢止할 것이니 現存하는 以上 適用하는 것이 至當하다고 談判하였읍니다 翌日 文部省內에 會議를 開催하여 協議한 結果 今年內로 指定한다는 일은 困難하므로 來年에 指定하기로 하였읍니다 무엇이든 해도 나는 學生諸君을 위하여 生命을 바치고 싸웠읍니다 1929年에 視學委員으로서 島峰博士와 文部省의 原田屈官이 學校를 視察하러 왔읍니다 大体 財団法人이라는 것은 相當의 基本財産이 없으면 財団法人은 設立認可가 되지 않는 것인데 京城齒科醫專은 基本金이 零이라는 것은 全然 異例한 일입니다 觀視學委員의 島峰先生이나 原田委員은 財団法人의 違法을 小生에게 談判해 왔읍니다 나는 其時 이 學校는 財田의 基金은 없으나 朝鮮總督府가 補助金을 내고 있으므로 他의 私立學校와는 다르다 政府는 이 學校를 보증하고 있으므로 그問題를 取消하여 달라고 말하여 承諾받았읍니다.

京城齒科醫專은 創立當時부터 實로 눈물겹게 完結하였던 것임니다 1931年 3月 13日 文部省의 指定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學校가 茁生하여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은 將來에도 잊어버리지 않고 今後 歷代學長께서는 最大의 努力을 다하여 世界第一의 學校로 만들어 주실 것을 念願합니다. (完)

대한치의보 「제38-39号, 1962, 5~6月」에서 轉載)

新設하려는 齒大是非

李 有 慶

完全한 教授陣, 設備, 準備없이 開校하지 말라, 近日 巷間에 새로 齒科大學이 設立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지난 봄에 光州

医科大学에서 齒科學部를 設立하고 벌써 新入生을 받았고 또
일과 전에 地方新聞을 보니 大邱慶北大學에서 齒科醫學部를 設
立한다는 報導를 보았고 또 延世大學에서도 至今 韓國의 齒科
大學은 하나밖에 없으니 하나 더 設立하여 보겠다는 말을 벌
써부터 들었나 물론 들으면 慶賀할 일 같지만 文敎部에서 새 밑
한 연구와 계획하에 잘 알아보고 許可하여 주지 않으면 書類
上으로는 그럴듯한 教授陣容에 훌륭한 教材와 施設을 가지고
始作할 것이지만 國立大學校 齒科大學發展에 있어서 8.15解放
後 至今까지 開典하였든 나의 경험으로서는 至今 우리나라 環
境에 있어서 無免許齒科行商보다 일마나 많은 齒科醫師를 養成
할 수 있는지 큰 의문으로 생각한다 現代齒科醫學은 高度로
飛達된 現代基礎醫學에 獨特한 齒科基礎醫學 및 技術을 習得케 하
는 部門이니 만큼 有能한 教授陣容이 必要하며 現代的教材施設이
絶對 必要하다. 讀者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齒牙에는 많
은 작고 큰 기계와 소모되는 材料과 계속적으로 必要하기 때
문에 1년에 30余名을 卒業시켜 내어보내는 학교를 設立하려
해도 지금 우리나라 環境에 있어서 이러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만일 모든 設備가 具備치 못한 學校가 設立되면 그런
학교가 늘어 갈수록 우리나라 齒科界는 其發展上 큰 害가 될
것이며 따라서 國民保健上 利보다 害가 더 많을 것이다 첫째
로 우리나라에서는 齒科大學을 設立하는 데있어서 教授가 大端
히 不足하다 日本時代에 齒科專門學校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教授나 助教授級의 員은 한명도 양성된 일이 없고 講師級의
先生님이 한 두분 계셨던 程度였기 때문에 8.15解放後 現
在을齒科大學에서도 큰 困難이있었고 現在도 困難하다 둘째로는

學生教育에 消耗되는 教材와 器械을 계속적으로 準備하기가 이
 러운 點이다 日政時에는 各自學生自身이 1, 2 學年에서부터 本
 科 3, 4 學年에서 患者取扱하는데 必要한 모든 器械까지 全部買
 入하였다 그리하여 學校經營者는 學生들이 使用하는 器械에 커
 하여서는 關係를하지 않았기 때문에 學校經營하기가 比較的 쉬
 였지만 解放後 至今까지 學校에서 全部準備하여 가지고 빌려
 주지 않으며 안되는 現象이다 그런데 여러가지 理由로 어느
 齒科器械業者나 學校가 在庫를 많이 準備할수도 없고 또 加之
 100%의 器械를 輸入하는關係上 必要한 運費費를 잘 調達
 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 많은 數호의 器械를 必要時에 繼續
 準備하기가 어렵기때문에 이 器械準備問題가 學校運營上 또한
 困難한 問題였다 多幸히 서울國立大學校 齒科大學은 韓國의唯
 一한學校였었기 때문에 美國政府로부터 其間 많은 施設과 教
 材의 寄贈을 獨占하였고 또한 O.E.C. 或은 A.K.F의 援助
 로 各科에서 이며 여러분의 先生님이 美國서 研究하고 오셨고
 또 繼續해서 美國서 研究할수 있게 計劃을 하는等 其間 많은
 發展이 있는것만은事實이다 그런데 內容을 보면 아직 未達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하두 先生님들이 熱心이기 때문에
 이제야 겨우 어느 軌道에 올을것 같지만 아직도 各科를 通하
 여 有能한 先生님이 더 있어야할 것이며 矯正科같은 것은 별
 쯤 꼭 있어야할 科인데도 不拘하고 教授가 없어서 아직 언제
 設立될지도 모르고 겨우 外來講師로 하여금 講義만 계속하고
 있는 정도이다 筆者는 絶對로 서울齒科大學을 評하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讀者 여러분들로 하여금 單 하나였던 서울國立齒
 科大學으로서 8.15解放後 至今까지 美國의 援助를 받고 또
 大韓齒科醫師會員 여러분들의 陰으로 陽으로 絶對의 協力을 받

그 文敎部長官以下 서울國立大學總長 其外關係先生들의 많은 協
 力を 받았는데도 不拘하고 한 大學으로의 어느 스탠다-드에
 오르기가 그렇게 어렵고 時日을 要한다는 것을 알리어 보려는
 意圖에 不遇한 것이다 現今 우리나라의 齒科醫界를 보면 基本
 醫學에 있어서나 臨床에 있어서나 우리 齒科醫入의 社會的地位
 로 보나 先進國家에 比해서 淸고러운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
 다 其間 大韓齒科醫師會에서는 우리 韓國齒科界의 發展을 위해
 齒科醫學會를 通해서 또한 其外 많은 機會를 만들어서 既成齒
 科醫師들의 再敎育을 위하여 많이 힘써 왔고 民衆의 啓蒙事業
 또한 國民學校學徒를 通하여 口腔事業等 많은 努力을하여 왔다
 大端히 좋은 일이다 그리고 讀者여러분 將來韓國齒科界의 發展
 을 위하여 또한 國民口腔保健을 위해는 하루 마비 完全한 齒
 科大學을 만드려서 훌륭한 齒科醫師를 培養케하는 것이 어느
 다른 방법과보다 낫다는 것을 讀者 여러분께서 切實히 느끼를
 줄로 안다 約4年前에 어느地方 두어곳에서 二,三人의 齒科敎育
 別로 經驗이 없는 齒科의사들이 30余年前 日本의 齒科牙醫2,
 3名과 齒科椅子 2,3名을 가지고 敎材도 없이 莫然한計劃을
 가지고 齒科學部를 始作하였다가 文敎部命令에 依하여 두 齒科
 大學이 廢鎖된 일이 있었다 實際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大學에
 는 卒業을하고 齒科醫師가 되었다하더라도 實力에 있어서는 無
 免許行商보다 別로 낫것이 있을것을 알고 文敎部에서는 廢校命
 令을한 것일것이다 우리나라 全體의 發展相이 아무리 늦다하드
 라도 營利을 위시 學校를設立하는 時期는 벌써 지난줄로 알며
 또한 個人의 한 慾望을滿足시켜주기 爲해서 準備不足한大學을
 우리가 容認할수 없을 것이다 어떤분은 外國에比해 우리나라의
 齒科醫師가 적으니만큼 學校를 많이 세워야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齒科醫師가 必要하다 하더라도 其어느 水準에 達하는 教授陣容과 教材 其外 모든 施設에 確實性이 없이 開校할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齒科醫師의 數호를 적은 것은 事實이지만 只今우리 環境에 있어서 齒科醫師가 그렇게 急하게 많이 必要하리라고는 앞으리라 믿으며 따라서 確實한 準備가 없이 그렇게 急하게 齒科大学를 設立하여 할 緊急狀態에는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실사 우리國民이 갑자기 많은 齒科醫師가 必要하다 하더라도 좋은 醫師一名이 열 不足한 醫師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느니만큼 完全한 準備가 없는 學校를 容納할수는 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美國 어느 齒科大学長이 華英齒牙는 齒科醫師가 約40名는 못쓰게 만든다고 한 말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 가만두었으면 못쓰게 될 齒牙나 못쓰게 될 것을 加工齒를 하느라고 하다가 齒科醫師가 못쓰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다 하물며 잘못 배운 齒科醫師들의 감춰진 失手는 두려울바 많을것이 아니나! 또 이면분은 우리나라 情勢에 있어서 어떻게 처음부터 完全한 準備를 가지고 學校를 始作할수 있겠느냐 始作하면 하나씩 이럭저럭 될것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도 있을줄로 안다판은 그러한 생각으로 設立한 學校들이 해도 많고 또 設立後 어느 스펀다-드에 이르는 준비時日이 해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一般國民이 받는 被害나 또 其專門部門의 退步는 一히 例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藥學界에 있어서나 醫學界에 있어서 볼수 있는 現象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이다 또한 既成 齒科大学에서 齒科學部라는 名目으로 齒科大学를 始作하는 것을 많이 듣고 보았다 万一 經費만 많이 있다면 設備는 咸宜으로 可能할지 모르겠지만은 教授陣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環境

境에 있어서 外國人齒科敎授를 招빙하면 모르되 既成齒科大學의 先生을 빼앗아 가지 않는限 新設齒科大學의 敎授陣容完備는 거의 不可能하다 筆者의 生覺으로는 當分間만 있으면 現存齒科大學에서 敎授級의 先生님을 新設齒科大學에도 보내어도 學生敎育에 큰 支障이 없을時期가 곧 올줄로 알며 또한 現齒科大學에서 敎材敎育方法等の 系統이 선 다음에 좋고 나쁜점을 하나씩 보충해 가면서 齒科大學이 하나씩 準備設되더라도 늦지 않을줄로 안다 우리나라 齒科界의 健全한 發展을 위하여 참된 國民口腔保健을 위하여 完全한 準備를 한 후에 齒科大學을 開校케 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보는 바이다 (『醫事時報』 第235호 1959, 12, 28에서 轉載)

齒科大學增設論

崔 正 奉

解放後 우리나라에는 無數한 大學들이 곳곳에 세워졌다 특히 6.25를 契機로 하여 學生들의 大學進學熱은 猛烈하였으며 이에 따라 大學은 兩微竹筍에다 비길 수 있었다 或者는 이러한 現象을 病的이라고 보는가 하면 또는 國民들의 敎育熱이 높아진 吉兆라고 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매추리」 大學生이란 流行語까지 생겨났으니 정말 막대한 노릇이다 이리할 때에 첫科門에는 아직도 치大를 新設해야겠다는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 그理由는 어디에 있는가 몇年前에는 地方에 齒醫學部가 두 곳이나 생겼다가 廢校를 당했는데 昨年에는 다시 認可를 얻어 學生모집을 完了하였다 이것으로도 첫科大學은 不足했음인지 延世, 首都, 慶北大學等에서도 치大를 新設하겠다는 소리가 들리자 大韓齒科醫師協會에서는 文教部에다 建議書를 提出하고 光州醫大

안에 생긴 齒醫學部를 廢校시키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한다 또
 얼마 전에는 大韓齒科醫師協會副會長이신 李有慶先生님의 反對論
 이 醫事時報와 大韓齒醫報에 發表되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齒科界는 齒大新設을 契機로하여 完全히 分裂狀態에 빠져있음을
 알수 있다 먼저 齒科醫師協會에서는 왜 反對를 하는가를 살펴
 보면 不充分的 齒科교육을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 봤자 社會에 미
 치는 結果는 오히려 逆作用을 하리라는 것과 齒科界의 質的向上
 을 期待할 수 없다는 理由를 내세운다 李先生님 역시 좋은
 醫師 한명이 不充分的 齒科교육보다 낫다는 것을 믿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과연 齒大新設운동은 無意味한가 慎重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李先生님은 齒科大学設立에 教授가 不足
 하다고 하였다 過去 日帝時代에 養成된 齒科教授는 단 한사람
 도 없었기 때문에 서울齒大에서는 現在에도 教授가 不足하여
 困難한 形便에 있고 더구나 꼭 있어야 할 矯正科도 教授가
 없어 두지 못하고 있다 하였다 韓國에 唯一한 서울齒大조차
 教授不足으로 이토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만약 完全한 教
 授陣이 없음에도 不拘하고 齒大를 設置하게 되면 거기서 배워
 나온 齒科醫師는 無免許齒科行商보다 얼마나 나을지 큰 疑問이
 라 하였다 同時에 서울齒大의 先生을 빼앗아가지 아니하는 限
 教授陣完備는 不可能하다 하였다 筆者는 이러한 글을 읽었을때
 果然 서울齒大에 계시는 教授님은 韓國齒科界에서도 가장 實力
 이 있고 有能한 분들인지 의심스러웠다 정말 서울齒大以外에서
 배운 齒科醫師들은 行商보다 나을수 없을가? 아무래도 생각해
 理解할수 없다 왜냐하면 서울齒大教授陣이란 助教授까지 모두
 합쳐도 열명에 不遇한데 이들에게서만 배워야 좋은 齒科醫師가
 될수 있고 그외사람들에게서 배우면 齒科行商 소위 포구리뽕게

만된다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에는 千余의 有
資 齒科 醫師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중에는 모구리보다
나은 분이 기껏 열명뿐이란 말인가? 그외의 齒科 醫師들은 無資
格 齒科 行 商과 大同小異한 말인가? 이것은 결코 나의 지나친
詭弁이 아니다. 우리나라 齒科界가 아무리 後進性을 띠우고 있
다 할지라도 또한 아무리 人材가 없다고 할지라도 서울齒大 教授陣을
떠나서 배운 사람들은 모구리가 될수밖에 없다는 말은 言語道
斷이라 하겠다. 지금 서울齒大 教授陣은 大部分이 日帝時에 教育
을 받은분들이라 그중에는 齒科界의 最新知見과 技術을 習得하
지 못하여도 있다는 것은 이미 周知의 事實이며 解放後 卒業生
中에는 이미 外國에 가서 各種의 技術과 理論을 배워 歸國한
이들도 없지 않음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筆者 역시 될수만
있으면 서울齒大가 그야말로 康洋을指의 大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事實上 서울齒大의 教授陣은 貧弱하며 教
授陣의 新陳代謝란 極히 滯澁한 狀에 있음을 볼때 서울齒大밖에
있는 有能한분들을 흡수하여 霸權을 거루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서울齒大을 살리는 길일것이다. 둘째로 李先生은 學校教育에 消耗
되는 教材와 器械를 계속적으로 준비하기가 어려우니 新設齒大
設교는 不可能하다 하였다. 그러나 서울齒大에서는 學生들에게
필려 줄수 있는 器材를 準備해 두고 있는데 이것은 外國援助
를 받을수 있었기 때문이고 왜 援助를 받을수 있었느냐 하면
서울齒大는 韓國唯一의 學校였기 때문인바 이것은 참으로 多幸
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筆者가 경험만에 의하면 지금 서울
齒大에서는 學生들에게 器械一切를 준비하도록 强要하고 있으며
돈만 있으면 能히 買入할수 있는 것이다. 다만 學校에서 빌려
주고 있는 것은 齒科用椅子나 유니트 外科用기계정도 뿐이다. 그

리고 비록 外國援助는 淸반을치언정 設備를 갖추는 문제는 이
 다까지나 充分한 予算을 세울수 있으나 쉽게 解決될 일이라고
 믿는다 만약 李先生님 말씀과 같이 必要時에 繼續準備하기가 어
 렵다면 低學年때부터 미리 外國에다 注文을 해둔다든가 그렇지
 으면 外國器材會社와 特約을 맺아서 우리나라에 支店을 두게
 할수도 있지 않으리라 본다 이러한 枝葉的인 問題를 내세워서
 齒大新設을 反對한다는 것은 常識이리라 學校運營者의 能力如
 何에 따라서 쉽게 解決되어질수 있다는 見解는 우리 周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수 있다 約千名을 추산하고 있는 無資格齒科行
 商들까지도 오늘날까지도 남아있어 번영一路를 걷고 있는데 이들
 이 必要한 材料나 器械를 求하기 힘들었다면 도저히 지금까지
 있을수 없었을 것이다 셋째로 李先生님은 지금 우리 환경에
 있어 齒科醫師가 急速히 必要하지 않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齒科大學을 新設해야 할 緊急狀態에 있지 않으며 실사 齒科醫師를
 많이 必要로 할 때가올지라도 좋은 齒科원 한사람이 열사람의
 不足한 齒科醫보다 낫다고 하였다 事實 그렇다 서울치大出身
 齒科醫師들도 일자리가 없어 쪼쪼매고 있다 지금 淸原으로도
 齒科醫師가 너무 많아 生活보장이 어려울 것이다 우리 나라
 齒科界의 生活水準이 낮은 理由가 단순히 同業者가 많히 생겼
 기 때문이라고 단정지은다면 차라리 서울치大까지도 學生募集을
 그만 두어야 좋을 것이다 정말 그렇게도 韓國에는 齒科의사가
 많은가 2千5百萬國民의 口腔保健을 단지千名의 齒科의사가 감
 당하고도 오히려 齒科醫가 남을지경이라는 結論말에서는 齒大新
 設反對論이 안나올수 없었으리라 그렇다면 外國은 어떠한가?

美國에는 近9萬名에 가까운 齒科醫가 있어 人口10萬對 齒
 科醫의比는 50名이 넘지만 아직도 齒科醫가 不足하다는 소리

가 높다 우리韓國은 人口 10 萬에 반치 5 名의 瘧疾의도 많은
 實情이니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筆者의 屢見으로서는 이때까
 지의 우리 선배님들이 國民에게 齒科醫의 必要性和 口腔保健의
 重要性을 宣傳啓蒙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都
 會地를 떠나 한 발자국 시골로 가보면 瘧疾의사를 알지 못하
 는 우리 동포들이 한 두사람뿐이겠는가? 瘧疾醫들도 無醫面
 으로 派견시켜라 各國民學校에 齒科校醫를 配置시켜라 일 자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할 곳이 없다 齒科醫師의 必要
 性을 우리自身들조차 모르고 있다면 그 누가 우리를 必要로 할
 것인가 先進國家에서는 一般醫師數의 절반은 齒科醫師가 차지하
 고 있다. 그러나 韓國은 一般醫師가 7 千名인데도 겨우 千名에
 不過하며 教育機關역시 이와 같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볼때 결코 韓國인 齒科醫가 많은것이 아닐것이다 오히려
 不足하다고 볼이 常識일 것이다

以上으로써 筆者는 李先生님의 글에 우리가 수긍할수 없는
 몇가지點이 있음을 지적해 보았다 그러나 이것이 決코 個人의
 私感에서 우리나라 온 소리는 아니다 다 같은 齒科醫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韓國齒科界를 보다 더 發展시킬수 있겠느냐는 點에서
 著言을 했을 따름이다. (醫藥時報「216 號 1960, 1, 22」에서 轉載)

正說과 逆說과 虛榮

스 코 필 드 博 士

1960 年에 40 年間 떨어져있던 韓國을 찾아올 때는 그래도
 나는 정든「코리아」에 社會的 知的 하다못해 外部的 變化라도
 있었으리라고 크게 기대했었다 사실 그동안 좋은 나쁘든간에 많은

變化가 있었다 그러나 學生들이 「유산·보이」를 시켜 구두를
 닦는 것은 내가 보고 싶었던 變化가 아니었다 나는 이러한 이
 상한 현상을 처음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를 몰랐다 한국
 이 카난하다는 것을 언제나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치의 증거이며 잘 사는 「유럽」 학생들의 생활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머물면서 알아본즉 學生들의 이러한 行動
 은 시골 어린이들의 카난하고 悲劇的인 환경이나 大學本部 學
 生에서 지시하는 規則과는 無關하다는 사실을 발견할수 있었
 다. 學生은 社會에서 一般的으로 우대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지
 외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리에서 뽐내며 구두를 닦는
 것이 그렇게 타사게 먹히는 것이 아니라는 실정도 알았다 신빙
 성이 별로 크지는 않은 現代心理學은 구두를 닦아 빛을 내고
 싶은 욕망을 學生들의 슬픈 가슴에 비쳐져 앓는 햇빛이나 어둠
 침침하고 단조한 서울大學校의 教室이나 學生들의 居處에 쏘이
 지 않는 햇볕에 대한 補償策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또 다른 問
 題로서 이는 女子大學校々誌에 실린 學生들의 寫眞을 보고 나
 는 더 놀랐다 그것은 學生들이 「펜싱」을 수련하는 광경을 찍
 은 사진이었다 어떻게해서 이러한 하영이 생겼단 말인가! 「펜싱」
 보다는 家庭主婦가 될 준비로서 이 「테리키트」한 처女들에게
 벽돌 쌓는 기술을 가르치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이러한
 것은 한국이 전실로 必要로하는 教育이며 「덴마크」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獸醫科大學을 보면 한국의 美德이라고 볼
 수 있는 大量生産教育이 훌륭히 시행되었으나 卒業은 就業狀態
 의 展望은 거의 無에 가까울정도의 10%밖에 되지 않았다. 卒
 業해야 할자리가 그렇게 없는데 무엇때문에 많은 學生을 入
 學시키느냐고 물으면 대답은 간단하였다 教授들에게 월급을 지

같아지면 많은 돈이 必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월급이 적기 때
 후에 教授들의 能力과 資格도 차이가 많다 어떤 教授는 훌륭
 한 教育을 받아 優秀하며 또 어떤 教授는 그렇지 못하다 더
 본이나 美國교과서를 그대로 베껴 「노트」를 읽거나 열심히 노
 투하는 學生보다 결코 더 많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르치는
 教授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學生들은 教授가 불러주는
 것을 주의하며 받아써야 하고 또 이것을 시험을 위하여 외워야
 한다 博士學位는 日本으로부터 사들일 수 있고 國內에서는 科學
 的 가치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論文으로 수여되기도 한다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리한 교수들을 물리서게 하는 方法은 분명
 히 없다 學生들이 참아나가는 길뿐인 것이다 學生들의 無關心상
 해는 여러가지 要因 때문이다 명든 말이나 소 돼치가 獸醫科大
 學을 찾아올 길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봐도 學生들이 평생보지
 도 못할 病에關하여 그렇게 高度히 세분화된 훈련을 가진 또
 든 教育內容은 점차적으로 비실재적이며 거의 「넌센스」에 가까
 워지고 있다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백이빠진 學生들은 게으
 르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영양실조, 기생충 혹은 피고, 입고 등
 른급 배기 위한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밤에 가정교사를 함으
 로써 일어나는 過勞때문일 것이다 學生들의 團體生活은 적어도
 서울大學校의 몇몇 單大에서는 高度히 飛達하였다 教授는 아무
 런 연락도 받지 못하고 教室에 들어가서야 자기 수업이 휴강
 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學生들이 어떤 중요한 시험을 치기
 위한 시험공부를 하기 위하여 집에 가버리기로 決定했기 때문이
 다 서울大學校에서 또하나 흥미있는 것은 10月初부터 未까지
 의 「秋季休日 시즌」이다 社會의 行事와 소풍, 단선일, 기념행사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이다 이는 행사거나 준비하는데 하루, 행사

하루는 하루, 그리고 피로를 회복하는데 하루는 보통 걸린다.
 가장 중요한 환시기념일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자면 檀君, 世
 宗大王, 李舜臣장군, 開校記念日, UN 데이,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학생들의 핑계로 기념일이 되는 날이 많다 이러한 전통적인
 행사의 결과로 1年中에서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달 10月은
 學研的인 面에서 보면 完全한 無所得의 달이 되어버리고 만다
 우리같이 가난한 民族은 그렇게 많은 귀중한時間을 허비할 처
 지가 못된다 어떤 行事는 없어야 하고 나머지들은 합쳐져야 한
 다 허영과 역설적인 현상의 표본으로서는 6年間の 授業年限을
가진 齒科大学을 보라 「유럽」에서도 보통 4年아니면 5年밖
 에 되지 않는다 6年이라는 이 이상한 현상을 뒷바침하는 「슬로
 칸」은 「나는 우리身體에 입이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믿는다」
 이 말은 음식을 먹지 않는 잘때나 아침에 온돌방에서 일어나날
 때에 宗教的 信心으로써 열번도 더 되풀이하여 이야기할수 있
 다 더 말하기 뭐하지만 言語學者들의 말에 의하면 입이 우리
 身體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 이것은 혀가 그 속에 있기 때
 문이라고 한다 2千萬의 우리 가난한 고객들을 보라 이런 처
 통, 비드럼니 석은 이가 무슨 수를 써서도 생각지 않게 하는
 일밖에 없다 이런 사치하고 신비한 존재가 되었다 齒科教育費
 가 50% 올랐고 치료비가 20% 올랐다 英國이나 「덴마크」,
 「스위덴」 獨逸과 같은 부유한 文明國家들이 우리들의 이 중대
 한 실험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韓國은 아시아에서 가
 장 우수한 치과 의사들을 가졌으니 이 실험을 끝낼 것이다 그
 럼 수백만의 가난한 한국인들은 가장 나쁜이를 가진채 실험판
 끝나는 것이다 이 어찌된 허영과 역설인가! 유일한 대책은 政
 府가 마음을 써 英國처럼 無償의 治療事業을 하는 것 뿐이다.

韓國의 教育家들은 이느 때쯤에나 美國의 「아이디어」와 方法을 그대로 베껴기를 그만 두고 그들 自身の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스스로 創造的인 思考를 할 것인가?

(大學新聞「제450호/1962.12.3」에서 轉載)

「스코필드」博士의 所論을 읽고

金 用 瑄

33人은 3.1운동에 있어서 우리 한국 민족代表者이지만 그
밖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있다면 우리 3千万저레가 다 알고
승안하는 「스코필드」博士를 기억할 것이다 「스」博士가 우리민
族의 獨立運動史에 永遠히 歷史的人物이란 것을 명심하면서 또
한 그가 우리나라의 教育界, 文化界에 남긴 偉大한 업적도 아
물리 찬양하면서 지난 12月 3日 大學新聞에 掲載된 「서울
大學의 問題點」이란 題下의 所論을 읽고 筆者는 駁히 正說과
逆說과 虛榮도 아닌 말하자면 極히 常識的인 意見을 외감하게
나마 記述코저 한다. 或時나 우리 한국齒科教育을 輕視하는 것
으로 誤認받아 「스」博士自身이 名譽에 誤點을 남길지도 모르겠
다는 老婆心에서 이 붓을 들었나 먼저 筆者는 「스」博士의
한국大學教育에 對한 諸問題點을 指摘한 所論中 한 두가지點을
除外하고는 全的으로 그見解에 贊同하는 동시에 또한 強力히
그見解가 實踐되기를 主張하는 사람의 하나인 것을 말해 둔다
그리나 다만 이저해서 齒科大學教育年限制가 逆說과 虛榮의 代表
的 標本이라고 断定하였는지가 理解할수 없다 歐美先進國의 例
를 들어 齒科教育課程이 4年서부터 5年이라 했는데 美國이나
西班牙의 例를 보면 그 4年이나 5年은 齒科專攻課程年限이지
거기에 予科課程은 包含되어 있지 않다. 現下 우리 한국에 있어

서도 그齒科專攻課程은 4년에 不過한 것이다 「스」博士의 意見대로 現齒科大学教育年限의 6년이 우리 같이 가난한 後進國實情에는 無理라고 하지만 富裕한 先進國의 口腔疾患과 가난한 後進國의 그것에 어떤 輕重의差가 있을수도 없고 또한 한국것과의 차는 4년이냐 或은 그以下 2, 3年程度의 教育年限으로서 배운 것 가지고 充分히 國民의 齒牙疾患 口腔保健等を 能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博士自身이 가난한 약소민족 후진국가를 위해서 투쟁한 역사가 매우 아쉽다 아니할수 없다 「스」博士는 우리 韓國人들이 모든面에서 日本人보다 잘 살고 행복스럽고 強해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면서 지금 日本의 齒大教育年限을 6年으로 延長해서 그나과 國民의 口腔保健을 世界水準에 올려 놓으려고 애쓰는 것을 안다면 오히려 한국것과教育도 日本 못지않게 더 철저히 잘해야 한다고 強調해 주기를 우리는 고대했든 것이다. 齒大가 6年으로 그 教育課程을 延長한 것은 결코 허명이나 먹실로된 制度는 아니다 人命을 다루고 그生死에 直接關與해야 하며 弱하고 불쌍한 患者를 治療해야 하는 醫師를養成하는 大學으로서 새삼스럽게 虛榮이나 逆說이니하여 教育年限自体를 是非하는 것은 좀사람과 같이 國民의 口腔保健을 더 重要視해야 할 處地에 있는 가난한 後進國民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見解라 아니할수 없다. 가난한 國民수록 그 國民은 더 健康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醫藥人이 더 많이 必要할 것이 아닌가? 富裕하고 文明人이라 해서 齒科醫師의 質이 높아야 되고 가난한 국민이라고 해서 齒科醫師의 質이 더러져도 좋다고는 할수 없는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後進國 가난한 國民일수록 높은 敎養과 技術을 가진 齒科醫師가 必要할것으로 안다. 더우거나 그 응미한 必須科目들은 先修後修가 있어서

예컨대 解剖組織을 배워서 病理를 理解하며 化學을 알아야 藥理學을 理解할수 있기때문에 더우거나 그에따라 實驗實驗이 뒷바침해야 하니 黑板과 「초-크」로 할수 있는 人文系敎育과는 그方法이 다르기 때문에 一定한 課程을 거치기 위해서는 不必要한 時間을 보낼수도 있는 것이다 「수박 겉핥기」式敎育을 하면 國民에게 미치는 直接的인 영향은 他專攻敎育에 비해서 매우 重大하다고 아니할수 없다 醫師나 齒科醫師의 失手, 過誤, 或은 無知는 患者의生命을 左右할수 있기때문에 先進國이건 後進國이건 부유한 나라건 가난한 나라건 醫科敎育을 보다 充實케하기 위해서 그敎育年限을 他科專攻敎育보다 길게한 것이며 또한 卒業後에도 다시 開業을 위하여 國家에서 定하는 免許試驗制이 있고 그외에 「인턴」이나 「레지던트」나 하는것도 臨床醫로 充分한 實力을 가지기 위한 것이다 결국은 齒科大學이 6年制敎育을 해야하는 것도 人間의生死, 患者의 幸福, 國民의 口腔保健을 다루는 醫術이기 때문에 그와같은 敎育年限을 必要로 하는 것이다 虛榮이나 逆說로 이루어진 非正常的인 非現實的인 敎育制度라면 너무나 現代齒科敎育에 처하여 無知하다는 것을 自認하는 일이 될줄 믿는다 끝으로 「스」博士는 齒大 6年制課程이 不當하다며 治療費가 20% 나을랐다고 했는데 治療費가 오른것과 6年制敎育과는 거리가 먼말이고 더욱이나 이 虛榮과 逆說의 產物인 齒大 6年制敎育과 英國의 無療治療制와는 全然關係가 없는 것이다 以上筆者의 見解를 披瀝하면서 우리韓國大學의 發展向上을 위해 우리에게 提示한諸問題에처하여는 衷心으로 感謝를드리면서 아울러 博士가 우리서울大學의 育成發展을 위해 애써주실것을 믿고 余生에 큰 光榮있기를 머리 숙여 바란다 (끝)

(大學新聞「第452号・1962. 12. 10」에서 轉載)

最近(1960~1962)에 發表된 國內 齒科醫學史關係文獻

李 漢 水

- 「韓國齒科醫學史研究參考資料」(齒學 8卷 2號, 1961年 2月) 1910年代의 齒科界를 엿볼수 있는 소위 「입방」에 관한 얘기.
- 「齒科醫學史雜誌 創刊當時記錄」(齒學 8卷 3號) 大韓 齒科醫學史研究會誌가 創刊되기 前後의 事情을 비교적 자세히 記錄하고 아울러 後學들에게 몇가지의 부를 한 것
- 「韓國齒科醫學史研究 參考小資料」(齒學 8卷 12號) 前齒의 裝飾을 目的으로 한 補綴의 一例를 報告

奇 昌 德

- 「韓國의 國民齒牙保健과 齒科醫療의 回顧」(齒醫界 5卷 1號, 1961年 9月) 먼저 西洋에서의 齒科醫學이 어떻게 發達되었는가를 말한 뒤, 우리나라 高麗以後 日帝時代初期의 齒科界事情을 말한 것.

金 熙 耿

- 「齒醫史研究」(齒醫界 6卷 1號) 1962年 4月) 1942年頃의 朝鮮齒科醫師會 實情을 各道別로 分類하여 記錄한 뒤 特히 慶尙南道齒科醫師會의 活動을 1954年度까지 살펴 본 것.
<蛇足> 慶南齒科醫學會에서는 齒醫史分科委員으로 鄭昭永氏를 選出(齒醫界 6卷 2號)

尹 溪 燦

- 「韓國齒科醫學 發達過程의 考察」 總 65 페이지의 브린트版(25.5×17.7)單行本. 먼저 目次를 살펴보면 ①韓國 齒科醫學의 始發. ②齒科大學設立의 紹介. ③生徒募集. ④教授陣. ⑤現今

齒大의 編制及學科目 實習程度 및 教授陣. ④基礎醫學과 齒醫師의 水準 및 社會人의 認識. ⑤向上되어 가는 齒醫學徒의 學究狀態 ⑥朝鮮齒科醫師會와 齒醫學會 ⑦無齒醫郡의 現況과 展望 ⑧우리들의 覺醒. ⑨參考內容等이다

廣 告

① 本會受贈圖書 : 柳樂達見博士는 38 線齒科醫學會의 招請으로 來韓하여 三木 榮氏의 著書「朝鮮醫學史及疾病史, 朝鮮醫書誌」를 本會에 寄贈했다

∴ 吳在仁氏는 그의 著書인「臨床口腔外科學」을, 朴道信博士는「齒學」16 卷을 寄贈했다. 그러나 本會에서는 아직 다음 各號의 寄贈을 바라고 있다. 「齒學」通卷 4, 5, 11, 16, 20, 24, 28, 35, 37, 44, 46, 47 號

∴ 美國의 캘리포니아大學校 生醫學圖書館에서는 Thomas A. Wise 의「醫學史」두卷을 本會에 寄贈했다. 이圖書館의 齒科圖書責任者는 David Bishop 氏이다

② 이분 저분의 動靜 ∴ 서울矯導所에서 苦生하는 申仁澈氏는 同家族들과 同業者들에게 安否를 伝해 달라는 부락을 보내왔다.

∴ 韓康燦氏는 世界保健日紀念式席上에서 保社部長官의 表彰을 받았다

∴ 安鍾書氏는 韓康燦氏의 뒤를 이어 大韓齒科醫師協會長으로 選出되었다. ∴ 獨逸의 齒醫史家인 F. H. Witt 博士는 지난 2月 14 日에 그의 제 75 회 誕辰을 맞이 하였다

∴ 本誌第 2 號에 실린 李春植博士의 글이 美國齒科醫師協會誌 2 月 號에 轉載되었다.

∴ 李漢水氏는 大峴洞에서 回基洞으로 移舍를 했다

∴ 崔鎮燦氏는 今年度第一學期에 首都醫大에서, 第二學期에 齒科大學, 梨花女大, 聖神醫大(漢醫補修教育)에서 醫史學을 講義했다.

韓國에서 展開된 齒科疾患救護運動 — GREEN SEAL 運動이란 어떤 것인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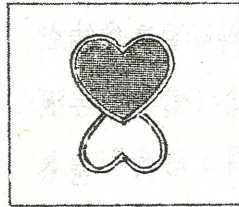
1960年부터 韓國에는 貧民의 齒科疾患救護를 目的으로 하는
《GREEN SEAL 運動》이 展開되고 있다

이 運動은 X-MAS SEAL 과 비슷한 것을 每年 6月
한달 동안 發賣하여 그收入으로써 齒科疾患 救護事業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運動은 아직은 一部の 青年齒科醫師와 一般
市民有志들에 의해 推進되고 있다

同運動者들은 이러한 齒科救護事業이 各國齒科醫師및 市民들에
依해서도 相互協議되어 國際적으로도 始作되기를 바라고 있다.

여기에서 同運動을 象徵하는 標識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同標識은 두개의 하
심천 것이다 이것은
서로 합친 것으로서
外形線 全体는 大白齒



-트가 上下로 서로
人間의 마음과 마음이
博愛精神을表示하며 그
를 表示하고도 있다.

그리고 同마그의 色彩는 上位의 하-트型은 綠色이고 下位의
그것은 白色이다 綠色은 歡喜와 平和를 表示하는 同時에 韓國
의 口腔保健週間이 初夏인 新綠의 季節이라는의 由來한 것이고
白色은 眞、善、美를 갖춘 純潔한 同事業의 奉仕精神을 나타낸
것이다.

韓國 그린·실運動者會는 1960年 6月 9日에 發足되었으며
現在 그 臨時事務連絡은 大韓齒科醫史學會에서 하고 있다.

同運動者會의 代表는 李 漢 水, 幹事長 劉 東 秀

大韓齒科醫史學會의所在地는

서울特別市 康大門區 回基洞 山4番地의 4號이다.

1960~1962年間の歯医事年表

<1960年> (国内)

- 入歯業者 問題解決 (訓令 18号).
- 大歯協會에서 韓美綜合技術学校の 歯科技工科設置를 反对.
- 金明目、金完基、徐廷勲、全哲浩氏 歯医学碩士, 劉錫煥, 任東淳氏 保健學碩士學位를 받음.
- 4.19 學生義舉.
- 全南醫大 齒醫學部 閉鎖.
- 五代民議員選에 金溶璫氏外 5名出馬.
- 保健社會部 医政局內 齒務課設置案 閣議通過.
- 大歯協會 第9回總會 會長에 韓東燦氏, 副會長에 徐永生, 尹在旭, 崔亨坤氏를 選出
- 保健社會部齒務課 対策委員會結成.
- 大韓齒科医学史研究會 (會長 李漢水氏) 創立, 會誌 (齿界最初) 創刊
- 大韓齒科 (齒周病科) 學會 (會長 金樂熙氏).
- 日本齒学研究會, 韓國齒科言論機構 創設.
- 韓國齒科界 最初の 医学博士인 裴珍極氏 (57才) 逝去.

(國外)

- 英國의 齒医史家인 린드세이女史 (89才) 逝去.
- 美國의 齒医史家인 와이버거氏 (74才) 逝去.
- 스웨덴 齒科醫師會 百周年紀念總會 開催.
- 日本의 齒医界雜誌인 齒界展望, 300号 突破.
- 独逸의 齒界雜誌인 Z.M. 創刊 50週年紀念.
- 美國의 Schatz 氏 Martin氏, Proleolysis-Chelation 說 主張.

- 美国의 外科専門医이며 口腔病理學者인 Urban氏 (62才) 逝去

< 1961年 > (国内)

- 李東夷, 林俊鎬, 金明起, (日), 金東順, 朴道信, (韓), 韓性洙, (美), 魚秀喆 (獨) 氏 医博士学位을 획득.
- 崔鎮煥, 嚴基澤, 趙永禹, 趙漢國, 白承浩, 任雲耕, 林炯基, 金炯希, 李相勲 氏 齒醫學碩士, 李敏性, 余宗煥 氏 保健學碩士 學位를 받음.
- 齒大同窓會에서 「儲慶」 創刊.
- 齒務課에 吳應瑞氏 就任.
- 38線齒科學會에 참석키 위해 朴鳳彬氏 博士를 비롯하여 松風, 森田氏 來韓.
- 5.16 軍事革命
- 齒務課 閉鎖
- 第3回 아시아 大平洋齒科會議에 韓秉燦氏를 비롯한 近二十名 參席.

(国外)

- 前 美国齒醫學史學會會長인 메릴氏 (91才) 및 호즈킨氏 逝去.
- 齒科醫學의 아버지인 포사르 200周年紀念會 프랑스에서 開催.
- 포사르의 「外科齒科醫」 복사판 발간.
- 헬싱키 (핀란드)에서 FDI의 齒科醫學史學分科委員會開催.
- 美国齒醫學史學會, 齒科醫學史學教科書 發行 準備.
- 스위스 치과 의사회 창립 75주년 기념총회.
- 獨逸의 齒科病理學者인 Euler氏 (83才) 逝去.
- 美国陸軍齒務團創設 50周年紀念式을 윌리엄스 陸軍病院에서開催.

○ 蘇聯 齒科医団 美国齒科界 訪問.

<1962年> (國內)

○ 「齒科會報」印刷体로 刊行됨.

○ 朴聖浩氏, 屍体の義齒鑑定으로 殺人事件解決.

○ 沈恭錫, 李永玉, 金達澤, 安炯珪氏 医博學位 획득.

○ 全東鎮, 吳珍石, 李憶氏 齒學碩士, 金官興, 金鴻植氏 保健學碩士學位를 얻음.

○ 改正된 國民醫療法公布.

○ 38線 齒科學會에 버니니少將을 비롯하여 나기라氏 來韓.

○ 齒大學長에 金東順, 病院長에 車文豪氏, 敎務課長에 鮮子良國氏, 學生課長에 金仁哲氏 就任.

○ 金南奎氏, 保社部 齒務担当官으로 就任

○ 大齒協會第11回總會, 會長에 安鍾書氏, 副會長에 徐永圭, 吳在仁, 崔亨坤氏, 議長에 卞鍾秀氏, 副議長에 徐丙瑞氏를 選出.

○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 學會(會長 李漢水氏)로 改稱.

○ 大韓口腔保健學會(會長 金周煥氏), 大韓口腔解剖學會(會長 金達澤氏) 創立

○ 大韓顎顏面成形外科學會(會長 吳在仁氏) 創立

○ 齒科醫師 專門醫試驗 보이콧.

○ 「齒大新聞」創刊.

(國外)

○ 第13回国際齒科醫學會, 독일 쾰른에서 開催.

○ 今年度 밀리賞 수상자인 단氏(69才) 逝去.

○ 「그림으로 된 치과의학사」發刊.

○ 前 FDI會長인 Joachim氏(80才) 逝去.

○ 三手스에게 齒科醫學史學雜誌(在界第二位) 發刊

A Dental Review on the Hyang-Yak-Gugeub-Bang

by Choi Jin Hwan, D.D.S.

The Hyang-Yak-Gugeub-Bang (First Aid Treatment with Domestic Drugs) is the oldest medical dental text extant of Korea. This anonymous book was mentioned to be first published during the thirteenth century (1236-1251) in Korea by the Daejang Dogam, an agency established for the printing of Buddhist scriptures.

The extant copy, however, is not the first edition, a Daejang Dogam copy, but is the second edition of 1417. Not even a single copy of this reprint is available in Korea, and the only extant copy is at present treasured in the Archives of the Department of the Imperial Household of Japan.

The book is divided into three parts and contained fifty five sections of one hundred pages. The first part deals with eighteen sections; food poisoning, sudden death, suicide, etc.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sections treat of the various diseases of mouth, tongue and teeth.

The second part deals with **twenty five sections**; carbuncle, frostbite, heartache, constipation, gonorrhea, blood urine, nose bleeding, eye disease, ear disease, etc. The last section treat of the diseases of mouth and lips.

The third part deals with twelve sections including gynecology, pediatrics, malaria, headache, etc. At the end of the book are brief descriptives of some one hundred and eighty different native medicines (Hyang-Yak) as appendix.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sections of the first part and the twenty fifth section of the second part, we find the following oral and dental diseases and its treatment.

(A) Mouth and Tongue - 1. double tongue 2. woody tongue
3. swellings of tongue 4. ulcers of mouth and tongue.

(B) The teeth - 1. dental hygiene 2. toothache 3. decay of the teeth 4. toothworms 5. easing the eruption of teeth 6. elongation of teeth 7. moving teeth 8. swellings of gums.

(C) Mouth and Lips - 1. dryness of mouth and tongue 2. ulcers of lips 3. swellings of lips.

Among the remedies prescribed for the tongue diseases were the powders of burnt snake skins and harts horn, typha, semen phaseoli radiati. For whitening teeth fructus gleditschiae and fine salt were used. Among the remedies to relieve toothache were peach seed, radix achvranthis, cortex radiceis lycii. And some medicine was inserted into the nostril. "Chop radish seed, make into a paste with human milk, introduce one into the right nostril when toothache was left side and into the left nostril when toothache right. Decayed tooth was filled with a cone made of pine resin. There were two kind of toothworms, the older was yellow and the younger white. Acupuncture was recommended to ease the eruption of teeth. A paste of pine resin with oil was used for the swellings of lips. But we could not find any prosthetic description in this book.

News of Dentistry in Korea

Dentists Identified Body of Woman:

Dentists have been asked to help in identifying the naked body of a Korean woman found weighted down with a big stone in Pusan, Korea, February 10, 1962. The police have described her as being 25 to 26 years old, three weeks after death by the fracture of cranial bone and without child.

A dental examination showed that she had two bridge made of Sun-Platinum (Ni 91-93%, Cr 6-7%, few Ag, Cu) in the lower arch.

She was identified as Miss Jang, bar girl, by a dentist, Dr. Park Seong Ho who had made her bridge two years ago. At last, Jeon and his brother confessed that they had murdered her.

Distinguished Visitors:

Maj. Gen. Joseph L. Bernier, chief of the Army Dental Corps and Dr. Nagira, former Dean of the Dental School in Seoul visited Korea to attend the annual meeting of the 38th Parallel Dental Society, an organization of U. S. military dentists stationed in Korea, April 27-28, 1962. George Paffenbarger, senior research director, American Dental Association, also attended the meeting May 5-6, 1961.

New Dean Appointed:

Kim Dong Soon has been appointed dean of the Seoul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Dr. Kim is presently professor of oral pathology and its director of postgraduate education.

Election of Officers:

At the 11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October 11-13, 1962, at Seoul, the following officers were elected for the ensuing two years:

President, Ahn Jong Seo; vice-presidents, Oh Jae Ihn, Seo Yeong Gyu, Choi Hyeong Gon.

本誌創刊号

內 容

創 刊 辭	李 漢 水	1
祝 辭	金 斗 鍾	3
韓 國 的 齒 科 醫 學	朴 明 鎮	6
韓國近代齒科醫學의 沿革	申 仁 澈	13
八·一五後의 齒科界 發展相	金 永 昌	31
韓國 齒科界 概觀	崔 正 奉	37
口腔衛生 — 緊急한 要件	咸 錫 泰	61
우리나라 齒科界 今昔談	安 鍾 書	65
韓米의 齒科業界에 對하여	殷 仲 基	70
朝鮮齒科醫界의 追憶	崔 崎 康 陽	72
朝鮮齒科變遷物語	大澤義誠	76
The Progress of Dentistry in Korea.	Boots	93
1960 年度 韓國齒科界		99
大韓齒科醫師協會 (朝鮮齒科醫師會) · 서울大學校齒科大學,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 · 서울特別市國民學校齒科診療室設置案.		
韓國齒醫事年代表	李 漢 水 抄	116
編輯後記	編 輯 部	120

第 二 号

內 容

Dentistry in Korea. (1893~1955)	朴 明 鎮	3
Dental Affairs in Korea.	李 春 根	5
Dental Profession in Korea.	李 漢 水	4
Observations of Korean Dentistry.	McInnes.	8
李朝時代의 口腔衛生學的知識에 關한 小考	崔 鎮 煥	15
「비에르·포카르」의 생애와 업적	崔 正 奉	24
1920~30 年代 的 齒科醫業 回顧記	安 鍾 書	53
“ ”	李 鎬 坤	57
朝鮮齒科界의 回想	垣見 庸三	41
京城齒科醫學學校의 沿革大要	垣見 庸三	43
京城帝國大學醫學部 齒科學教室의 沿革	生田 信保	47
編輯人에 온 外國書信		11
聖 아폴로니아	崔 正 奉	64

展 祝 發

-◇-	會	協	師	醫	科	齒	韓	大	-◇-
-◇-	會	學	礎	基	科	齒	韓	大	-◇-
-◇-	會	學	剖	解	腔	口	韓	大	-◇-
-◇-	會	學	健	保	腔	口	韓	大	-◇-
-◇-	會	學	科	外	成	顏	韓	大	-◇-
-◇-	會	學	外	形	科	齒	韓	大	-◇-
-◇-	會	學	正	矯	科	齒	韓	大	-◇-
-◇-	會	學	存	保	科	齒	韓	大	-◇-
-◇-	會	學	上	引	科	齒	韓	大	-◇-
-◇-	會	學	線	射	科	齒	韓	大	-◇-
-◇-	會	學	綴	補	科	齒	韓	大	-◇-
-◇-	會	學	科	齒	兒	小	韓	大	-◇-

一九六二年十二月二十五日 印刷

一九六二年十二月三十一日 發行

大韓齒科醫學史學會誌

(每年一回十二月 發行)

刊行特別市東大門區西基洞山四斗四

編輯人 崔 正 奉

刊行特別市東大門區西基洞山四斗四

發行所大韓齒科醫學史學會

刊行特別市鍾路區鍾路二街四五

印刷人 禹 和 潤

(非賣品)